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1
2012. January

해운대의 해돋이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심 없이 달려온 지난 일년,
뒤돌아 보면 술한 기쁨과 영광된 순간과 좌절이 있었으리라.
회한과 안타까움도 어찌 없을 것인가.
허지만 다시 시작되는 시간을 앞두고 지난 것들을 비우지 못한다면
새것이 들어설 공간이 없을 터,
떠오르는 해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 진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편집인 이근호
편집위원 송승우 김경원 김성우 김성환 김성우
편집국장 최정호
초청기자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발행인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등록인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영세판매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관광호텔 10층
발행일 2012년 1월 4일
편집장 이명규
편집 디자인 최정호
http://www.busan2012.kr



표지 - 해운대 일출

- 05 오륙도
- 06 부산시 관광협회 일본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친선 교류회
- 08 정주시 여유국 관광설명회 개최
- 09 동남아 여행객 유치
- 10 컨벤션 센터 특집
- 13 2012년 부산 그랜드 세일
- 14 시티투어 버스 역사 문화탐방코스 신설
- 16 부산 암바다 문화·관광·IT·세계적 해양도시
- 17 북항대교 상공식 거행...2014년 해안순환도로 완성
- 18 크루즈 특집
- 22 부산시 여행자들의 새로운 로망으로..
- 23 부산 도시 브랜드 2위
- 24 부산 굵긴 갈매길, 구간 잇고 중주길로 연결
- 25 회동수원지에 출렁다리 조성
- 26 문광부·관광공사 '한국의료 관광 총람' 발간
- 27 북항 재개발지 내 관광유통지구 신설
- 28 중국 장춘시 국립병원, 부산시와 의료관광 MOU 체결
- 29 '한화리조트 해운대', 고급 비즈니스 호텔로 변신
- 30 갈매기·여배우 상징 조형물 영화의 전당 명물로..
- 31 부·울·경 중국 관광객 합기 '함께'
- 32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 칠원을 걷다
- 33 부산 기장 '꿈의 암치료기' 입자가속기센터 기공식 가져
- 34 동서양 역사의 중심, 마카오
- 37 칼럼 | 김봉오 편집장 (壬辰年 새해가 밝았다)
- 38 칼럼 | 이명규 편집위원 (관광사 제도를 제안하며)
- 40 부산 관광 & 교통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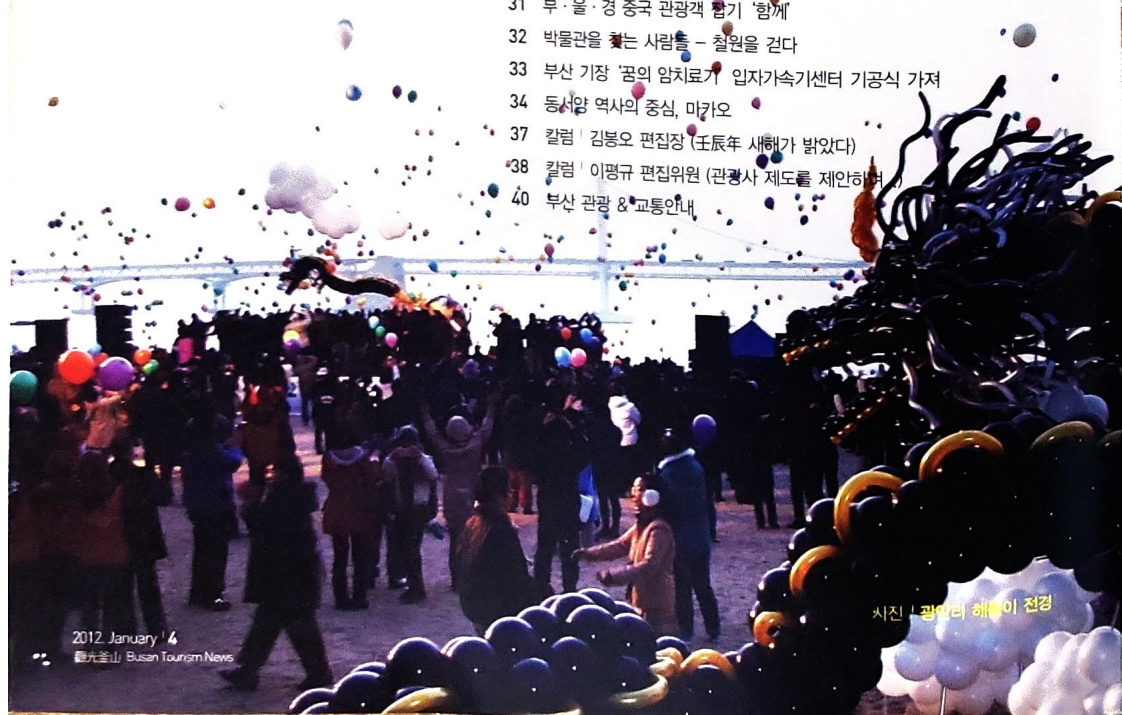


사진 : 광안리 해변이 전경

오/륙/도

'송구영신' 언제나 그렇다. 목은 건 떠나 보내고 새것을 맞이해야 한다.
그게 삶이다. 한데 그게 쉽지 않다.
목은해를 뒤로하고 마지막 달려 한장은
그래서 생의 무게 만큼이나 무겁다.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의식이 해맞이다.

동해와 남해의 경계는 어디일까.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항해지에는 부산 승두말로 표시돼 있다. 승두말은 용호농장 앞 해안. 승두말에 닿을 듯 있는 섬이 오륙도(사진)다. 그러니까 오륙도가 동해와 남해의 경계인 섬이다. 참고로 동해는 두만강에서 등두말까지, 남해는 승두말에서 해남까지, 서해는 해남에서 압록강 까지도.

부산의 상징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오륙도, 동쪽에서 보면 여섯 봉우리고 서쪽에서 보면 다섯 봉우리라서 오륙도라 한다고 1740년 편찬 동래부지에 기록되어 있다. 육지에 가까운 두 섬 아랫부분이 거의 닿아서 섬 둘에는 하나, 밑물에는 둘로 되어 오륙도라고도 한다.

오륙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섬 이름은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방패섬, 술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이름 내림이다.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섬. 술이 자라는 술섬. 갈매기를 노려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수리섬. 뾰족한 섬 송곳섬. 커다란 굴이 뚫린 굴섬. 등대가 들어서기 전에는 평탄해서 밭섬으로 불린 등대섬이다.

윤상운 시인은 오륙도를 이렇게 읊었다.

날이 흐려 다섯이면 어쩔고 / 날이 맑아 여섯이면 어쩔가 /
다섯과 여섯을 넘어 바위로 선 / 영원 /
덧없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싶다가 /
어느 새 섬은 잠들고 / 밤을 헤느라 조용하던 파도들 /
섬을 향해 다시 밀려가면 / 우리가 왜 외롭고 /
우리가 왜 그리운지 / 그때 문득 아는가.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이 쉽게 부글대고 쉽게 치솟는 건 섬을 향해 밀려가는 파도 때문. 쉽게 풀고 쉽게 터는 건 파도가 덧없다는 걸 알기 때문. 그러면서 외로운 섬처럼 축축해지고 또한 그리움도 축축해진다. 그대 아는가. 바닷물에 젖어서 섬이 되어가는 사람들. 바닷소리에 젖어서 섬이 되어가는 사람들..

壬辰年 새해아침 김봉오 / 편집장

부산시 관광협회 일본 후쿠오카(福岡), 시모노세키(下關) 친선 교류회

부산시 관광협회는 지난달 8일 일본 후쿠오카 자매결연 45주년, 시모노세키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두 도시를 4박5일 일정으로 참석했다.

이근후 부산시 관광협회장은 후쿠오카 니스데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환영회 인사말에서 1968년 10월 4일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45주년이 지나면서 한·일 양국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관광교류국으로 발전했고 우의 증진 또한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쌓아오면서 증대했다고 말하고 또 오늘 양국은 자나온 과거의 우호와 교류의 전통을 승중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후쿠오카시 컨벤션부로 가오베 히로유키(河部浩幸)회장은 '부산시 관광협회와 자매결연 45주년을 계기로 두 자매협회의 우의와 협력으로 양국간의 친선과 국제교류연계가 한층 더 돈독하게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시모노세키 마린 호텔에서 개최된 시모노세키 관광컨벤션협회와의 친선교류 관광의 밤에서 이근후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 30일 맺은 국제 자매 결연을 계경, 5년새월동인 두 자매협회사이에는 친선교류회 개최, 관광 홍보 설명회 등 상호 교류활동을 충실히 수행, 미래지향적인 교류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또 앞으로 두 자매협회 협력이 건인치가 되어 부산·시모노세키 양도시는 물론 한·일 양국의 교류와 친선관계가 한층더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모노세키시 나가오 토모아키(中尾友昭) 관광컨벤션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먼저 양 도시간 자매결연체결 5주년을 맞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관광의 발전은 한-나-이-만-국한되어서 안되고 중국, 싱가포르 등 다 같이 힘을 모아 서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 관광 진흥 발전에 양국이 서로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후쿠오카 [Fukuoka]

-일본 규슈(九州) 북부에 있는 현(縣)

북서쪽으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북으로는 시모노세키 해협(下関海峡), 서쪽으로는 쓰시마 해협(津門海峡), 남쪽으로는 이리이케 해(有明海)와 접해 있다. 바다로 흘러나가는 강들이 광활한 평원을 이루고 있다. 서쪽 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 남부에서 농업이 이루어지지만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탄광과 석탄산업이 주산업이다. 1963년 모지(門司), 고쿠라(小倉), 도비테(戸畑), 아사타(八幡), 와키마쓰(若狭) 등 5개 도시가 합병되어 규슈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종합산업도시인 기타큐슈(北九州)가 되었다.

시모노세키 해협 일대를 관통하고 있는 2개의 터널과 와카토 대교(若戸大橋)가 후쿠오카 시와 혼슈 지방을 연결하고 있다. 현청소재지인 후쿠오카 시는 예전의 히카타시(博多市)를 합병했으며 히카타 만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다. 이 히카타 만에서 1261년 이른바 가미카제(神風) :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 붙어서 몽골 침략군의 함대를 몰아버리고 침몰시켰다. 예전에는 항구였지만 현재는 지방의 상업·공업·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기차역이 활발한 항구와 규슈대학(1911)이 자리하고 있다.



2012 January 6
觀光島山 (Island Tourism News)



시모노세키 [Shimonoseki, 下關]

-일본 혼슈(本州) 아마구치 현(山口縣)의 최대 도시.

혼슈와 규슈(九州) 사이의 시모노세키 해협에 자리잡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예전에는 아카마기(赤間關) 또는 바리(馬場)이라 불렀다. 1906년 지금의 기타큐슈(北九州)인 모지(門司) 사이에 철도 및 연락선이 개통되면서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부관(釜關) 연락선 항로가 개설되어 일본의 한국 침략의 교두보가 되었다. 1942년 철도용 터널에 이어 1968년 자동차 및 보행용 터널이 해저로 개통되었으며, 1970년 한국의 부산까지 국제연락선이 취항했다. 1942년 이래 중공업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1940년 이곳과 모지 항, 고쿠라 항(小倉港)이 합쳐져 간몬 항(關門港)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도코(東洞)와 오사키(大崎)를 잇는 신칸센(新幹線)이 시모노세키를 거쳐 시모노세키 해저 터널을 통해 규슈 북부지방까지 연결되었다.



중국 정주시(鄭州市) 여유국 관광설명회 개최

중국의 부패와 문화의 발전이며 경제, 경제 중심지인 중국 정주시 여유국 관광설명회가 지난 9일 시내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허광파(何光波) 여유국 부국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이근후 부산시 관광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부산 세계불광축제 관광 등으로 3번째 부산을 방문, 그때마다 늘 처음 올때처럼 새롭고, 휘기찬 모습이었으며 또 바다도, 강도, 산도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수천년의 오랜 역사의 건강한 문화, 관광의 도시 정주를 찾아주시지요. 정주는 여러분이 주안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양 도시간의 교류 방문을 통해 좋은 인연 맺기를 원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후 부산시 관광협회장은 "정주시가 미래 지향적인 교류 관계의 새 지평을 열고자 허광파 여유국 부국장님을 비롯한 일행이 부산을 찾아주시는데 대해 감사한다. "우리 부산 또한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주시와 관광교류관계가 한층 더 돈독하고 강화되기를 기원한다" 말했다.

정주시는 중국의 중동부와 황하의 중하류에 위치한 3,600년의 역사를 지니고있는 8대 고도중의 하나이며 발달되고 현대화된 도시다.

문화

정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지역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다. 한자가 여기서 탄생하였으며 불교가 여기서 융성했으며 동방문화는 정주시를 한층더 신비한 면사에 휩싸이게 했다.

천년고찰 소림사

소림사는 중의순산 소설산의 숲속에 안겨 있으며, 기원 495년에 북위나라 효문제 원림이 인도고승 불타를 안착하기 위해 창건했다. 또한 소림사는 중국 불교계의 '선종조상'이다. 선종은 중국 불교계의 굽이지 않는 주류종파이며 그 영향이 한국, 일본, 동남아까지 널리 퍼져있다.

무술의 발원지

천하무술은 소림사에서 나온다는 옛말이 있다. 소림권은 역대 승인들이 건강증진과 정신수양 그리고 호신어담-몸을 지키고 간담을 키우기 위해서 소림권법을 개발했고, 짐승들의 몸 동작까지 응용한 이 신묘한 무예 때문에 소림사는 불교의 수양 도량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고유 무술의 커다란 발원지로 그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부산·후쿠오카 공동,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중국 난징시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언론인, 여행관계자 참석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가 최근 전세계 관광업계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후쿠오카 시는 지난달 공동으로 중국 난징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관광설명회를 가졌다. 현지 언론인과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 두 도시의 매력을 알린 것.

허남식 부산시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부산시 홍보단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편리한 쇼핑환경 등 부산의 매력을 적극 알렸으며, 펜타토닉스 피포먼스 공연단도 동행, 광안대교와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몸짓으로 표현해 부산을 알렸다.

후쿠오카시도 11명의 홍보단과 일본 전통춤 노와다이로 공연단을

동행했다. 부산시 홍보단은 천강 난징시 관광부시장을 초청, 민간인담회를 갖고 두 도시간 관광교류협력도 논의했으며, 목경린 난징시 부부서장을 만나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후쿠오카 시는 광역경제권으로서 하나의 관광권을 형성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매년 한차례씩 공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삼하이를 시작으로 중국 내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도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중국 청년 여행사와 '관광사업 협력' MOU 체결

부산시는 지난날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최대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CYTS·The China Youth Travel Service Tours)와 '부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기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가오주셴(Gao zhouxian) 부사장이 서명자로 나서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부산 단독여행상품 개발과 판매,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부산 관광지 홍보 등 중국 내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관련 내용이 담겼다.

중국청년여행사는 현재 부산 패키지 상품과 FIT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부산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방문단은 중국 베이징에 머물면서 중국 대형여행사 및 로컬 기업체 담당자 등 MICE 관계자를 만나 부산관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중국 항공사 최초로 지난 6월 부산에 단독 노선을 개설한 해남항

공 관계자도 만나 향후 부산 우수관광객 증진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내년 한·중 수교 20년을 맞아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세계관광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오투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부산에 관한 모든 것(http://weibo.com/fushan2010)이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FIT 여행자들이 스스로 여행코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숙박, 여행지, 교통편 등 백과사전식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관광 홍보 마이크로 사이트(www.busantravel.net)'를 운영하는 한편 중국 최대 블로그 2.0 사이트인 '런런닷컴(RENREN.COM)'과의 제휴를 통한 파워블로거 초청 이벤트 등 전략적인 온라인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다.



◀ 북극곰수영대회

황금 관광객 낚는 MICE 산업 지난해 12조2054억원 벌어들여 100명 입국 맨 자동차 21대 수출효과, 작년 일자리 12만8726개 만들어



미이스(MICE)란

기업 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다. 기업 임직원이나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행사를 말한다. 참가 인원이 많고 부가적 경제효과도 커 관광산업의 블루 오션(blue ocean)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와 관광, 전시박람회 등을 포함한 복합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영역이다. 공해가 없고 수익성이 높아 대표적 미래 산업으로 꼽힌다. 최근엔 대형 이벤트(Events) 부문도 시장에 포함될 정도로 관련 분야가 커지고 있다.

국내 미이스 산업의 역사

국내에서 열린 첫 번째 대규모 회의는 1955년 4월 조선호텔현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 조선 기자대회다. 이 행사는 관공서나 고궁에서 열렸던 기존 회의와 달리 호텔에서 열렸다. 해방 이후에는 63년 제14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가 개최되면서 컨벤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79년 PATA 총회를 두 번째로 개최한 뒤에는 한국관광공사에 국제회의부가 설치됐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개최로 외국인 관광객의 중요성을 실감한 한국은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잇따른 개최로 미이스 산업의 역량을 키워갔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코엑스, 고양 킨텍스,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2개의 대형 컨벤션센터가 있다. 2000년 5월 코엑스를 시작으로 10년 새 컨벤션센터 9곳이 차례로 문을 연 것이다. 또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미이스 산업을 전담하는 기구 7곳이 전

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프라 확충의 결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세 배로 증가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시설 확충이 관련 업계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제협회연합(UIA)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201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전 세계 도시 중 5위에 올랐다. 부산과 제주는 각각 17위(93건), 27위(67건)를 기록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의 인센티브 관광단은 한번에 2000~1만 명씩 제주를 찾아 '큰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와 대구·대전·광주·인천·창원시 등도 컨벤션 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년에 미이스 관광객 63만 명을 유치해 UIA 기준으로 세계 5위권 국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올해 목표인 54만6000명에 비해 15%(9만4000명) 성장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만 1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100명 입국 맨 자동차 21대 수출 효과

한국관광공사는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에 100명의 참가자나 관광객을 유치하면 중형 자동차를 21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부가치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2인치 LCD TV 1531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처럼 컨벤션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G20 회의의 경우 참가자 1인당 평균 2488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가자들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두 배 이상 돈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는 인센티브 관광도 일반 관광객에 비해 소비 규모가 훨씬 크다. 회사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의 주요 경비를 대주는 데다 본인도 개인 돈을 쓰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점심과 저녁은 관광지 내 식당을 이용한다. 단체관광을 제외한 일정을 틈타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쇼핑을 한다. 대규모 관광단이 몰린 지역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이유다.

작년 일자리 12만8726개 만든 미이스의 손

미이스는 황금 관광객을 낚는 산업이다. 경희대 컨벤션전시장학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이스 산업의 총 파급효과는 17조8237억원이다. 미이스 관련 업계를 통해 직접 벌어들인 돈만 12조2054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12만8726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부산, 아시아 4대 국제회의 도시로 우뚝! 지난해 국제회의의 93건 치류, 아시아 4위, 세계 17위



부산이 아시아 4대 국제회의 도시로 우뚝 섰다. 세계 순위는 17위다. 국제협회연합(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이 발표한 '2010년도 국제회의 개최순위'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93건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아시아 4위, 세계 17위를 차지했다.

부산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은 UIA 기준 지난 2004년 6건, 05년 23건, 09년 41건, 지난해 93건으로 급증했다. UIA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회의 통계 전문기관으로 전체 회의 참가자 300명 이상, 참가자 중 외국인 비중 40% 이상, 참가국 5개국 이상, 회의기간 3일 이상의 대형 국제행사만 통계 기준으로 삼는다.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발돋움한 밑바탕에는 해운대 벡스코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벡스코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시·컨벤션을 통해 거둬들인 경제 파급효과만 9천8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올 들어서도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IT엑스포, 마린워크, G스타, 세계한상대회 등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부산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벡스코의 눈부신 성장은 부산시가 2005 APEC 정상회의 이후 국제회의 산업을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으로 지정, 관광·컨벤션산업 육성과 함께 부산관광 컨벤션뷰로, 호텔, 대학, 같은 관련 업계와 공동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펼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부산시는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과 벡스코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벡스코의 전시공간을 더 늘리고 새 공연장을 만든다. 벡스코의 신관 전시장 규모는 2만32m. 기존 전시장과 합치면 4만6천540m에 대형전시회 2개를 동시에 열 수 있다. 전시관 확장을 완료하면 서울 코엑스(3만6007m)보다 더 큰 규모가 된다.

공연장 '오디토리움(Auditorium)'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디토리움은 지하 2층·지상 5층, 모두 4002석 규모의 멀티 공연장으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행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2천석, 3천석, 4천석으로 객석 규모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중앙 무대와 좌·우 무대를 활용해 인회를 열 수도 있다. 옥상 정원은 야외파티도 가능하다. 그야말로 '멀티(다용도)' 공간이다. 벡스코의 시설 확충은 앞으로 200일이면 마무리된다.

벅스코, 오디오리움 5월 완공 앞두고 시설확충 설명회 개최 신관공사 완공시 전시장 총 4만6540㎡, 객석 2000, 3000, 4000석 조절 가능

부산 벅스코가 5월 완공을 앞두고 신관 공인 대규모 멀티 오디오리움(Odeon)의 완공과 함께 시설확충을 했다. 벅스코는 오디오리움과 전시관 공사의 시설 확충을 앞두고 6월 6일 오전 10시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이 두 시설 확충 설명회를 개최했다.

벅스코는 시설확충을 앞두고 관공주요 전시관 회의의 주최가 이젠 더 확대돼 1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연례행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멀티 오디오리움의 시설확충을 앞두고 벅스코 시설확충을 위한 다양한 공사 세부사항 설명회 개최와 함께 전시관, 컨벤션홀, 대강당, 공연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 확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시관, 컨벤션홀, 대강당,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확충을 소개하는 것이다.

벅스코의 시설확충을 위한 대규모 오디오리움과 신관 전시관 건물 신축이 완료된 후, 5월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의 대형 오디오리움 벅스코는 오디오리움의 가장 큰 특징은 3만여 객석으로 무조건 단독으로 구동할 수 있다. 또 각종 행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2000석, 3000석, 4000석 등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중앙무대 및 좌우측 무대를 활용해 연회가 가능하고, 무상정원에서 야외 파티가 가능하도록 꾸민다. 벅스코 측은 이런 모습을 영상물 형태로 소개하면서 다양한 색깔과 구조를

갖춘 멀티 오디오리움"이라고 설명했다. 오디오리움은 8개의 동시통역 부스, 분장실, 준비실, VIP라운지, 주최자 사무실, 케이터링 주방 및 표소 등 지원시설도 갖췄다.

신관 전시장은 2만32㎡로 기존 전시장과 합쳐 4만6540㎡로 늘어나 웅만한 전시회 2개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 전시관 확충이 완료되면 서울 코엑스(3만6007㎡)를 제치고 고양 킨텍스(10만8761㎡)에 이어 규모 면에서 국내 2위의 전시장이 된다. 벅스코 확충 공사에는 19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5월 중순 예정인 부산 해운대구 벅스코 오디오리움 조감도.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 4,002석 규모이며 3면이 객석으로 꾸며진 독특한 구조가 되어 있다.



벅스코, 신규 전시회 개발 박차

전시컨벤션센터 벅스코(BEXCO)가 시설확충에 맞춰 신규 전시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시컨벤션센터(벅스코)가 6월 제2전시관과 오디오리움 등을 신축하면서 연면적 21만3천849㎡로 시설면적이 자급보다 2배 이상 확충됨에 따라 신규 전시회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벅스코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여건과 산업특성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검토해 향후 우리나라 대표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4개 분야 전문전시회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전자산업전'은 한국 원천기술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대의 원천산업벨트의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을 소개한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10개국 이상 해외업체와 국내 원천산업업을 대표하는 기관 및 대기업, 중소기업, 병원 등 120여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포장기기 및 엔지니어링산업전'은 포장기기, 물류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전시회다. 이미 독일, 일본, 이탈리아, 미국의 산업업체들이 참가를 결정한 상태다. 동남권 지역의 기계, 조선,

항공,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 관계자 등도 바이어로 참여한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사진·영상·방송기기전'은 방송, 영상 관련 최신 제품과 정보를 소개하고 관련 산업계의 판로 확대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는 방송 및 영상 관련 150개업체에서 250부스 규모로 참여하며, 주요 전시품목은 사진 장비, 영상장비, 방송장비와 주변기기 등이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는 해양조선산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핵심기술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해외장비업체 250개사와 국내기자재업체 50개사 등 총 300개사가 70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해양플랜트 주요설비와 석유시추기술 관련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된다.

김수의 벅스코 대표이사는 "벅스코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신규 전시회는 시설확충사업 완료와 함께 부산지역 전시컨벤션 산업을 대형화하고 세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시회를 선보이는 만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부산그랜드세일 개최

부산시는 한국의 방문의 해 기념과 관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부산의 소품,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2 부산, 그랜드 세일' 행사를 실시 한다.

- 기간 : 2012. 1. 9(월) ~ 2. 29(수), 52일간
- 장소 :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및 특화지역 중심
- 대상 :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행사내용 : 소품, 숙박, 식음료, 공연, 관광시설 등의 이용료 및 제품가 특별 할인, 기념품 제공 등
- 참가대상업체
 - 쇼핑 : 백화점, 대형소품몰, 관광기념품 판매점, 인삼, 귀금속 등의 특화지역, 면세점 등
 - 숙박 : 관광숙박업(특급, 1급 상당 호텔)
 - 음식 : 관광특구내 관광식당업
 - 기타 : 크루즈, 아쿠아리움, 카지노, 공연장 등
- 부산시 지원사항 : 국내외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 및 할인쿠폰복 제작, 해외관광객 안내 등



시는 2011년 2백만명 외국인 관광객 돌파에 이어, 2014년 외국인 관광객 3백만명 유치 등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선정한 BIG20과 부산지역업체 중에서 참여의지, 외국어, 현지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했다.

영도구 절영로에 흰여울 문화마을 예술 창작 공간 대변신

주인 없이 버려진 빈집이 리모델링을 거쳐 가난한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게 됐다.

부산 영도구는 영선동 절영로 동산아파트와 백련사 인근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흰여울 문화마을을 27일 개장했다.

영도구는 부산시가 폐·공가 개선사업으로 배정받은 시비 4천500만 원을 투입해 절영로 주변 연면적 116㎡(약 35평)의 건물에 노란색 페인트를 입히는 등 시설 정비에 나서 3개동에 5개의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중구 동광동과 중영동 40계단 일대

빈 상가건물을 사들여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또따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초차단체가 빈집을 활용해 별도의 상주 공간을 만든 것은 영도구가 처음이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배어남 해안정장으로 잘 알려진 절영해안산책로의 길목에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탈바꿈한 빈집들은 주인이 떠난 민가로, 영도구는 기존의 사용 가능한 시설을 재활용키로 했다.

부산 시티투어 버스, 범어사 등 역사 문화탐방코스 신설 3대 증편 11대 운행, 배차간격 40분에서 30분으로 줄여 운행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신규노선인 역사·문화탐방코스와 해동웅공사코스가 추가로 신설된다.

시티투어 버스 운영사인 부산관광개발주는 기존 5개 코스(주안 4, 야간 1개)에 더해 1월부터 동래구와 금정구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역사·문화탐방코스와 기장군 해동웅공사를 둘러보는 코스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 한 차례 운행되는 역사·문화탐방코스는 매일 오전 9시 30분 부산역을 출발해 범일동 골드테마거리-북천박물관(고분군)-금강공원-범어사를 거쳐 오후 1시 30분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4시간이 소요된다.

30분간 머무는 북천박물관에서는 인접한 동래읍성역사관과 장영실 과학동산을 함께 관람하게 된다. 또 금강공원에서는 50분간 머물며 동래학춤 등 민속공연 관람이나 케이블카 탑승을 하게 된다. 최종 목적지인 범어사에서는 40분간 머물며 천년 고찰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 사적 제273호인 북천고분군과 범어사 관람 시에는 전문기사의 문화해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관광개발은 역사·문화탐방코스 신설에 맞춰 해동웅공사 코스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코스는 매일 오후 2시 부산역을 출발해 송정해수욕장과 기장군 해동웅공사를 둘러본 뒤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4시간 코스로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 달맞이길, 광안대교를 경유한다.

버스로 3대 더 도입해 모두 11대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는 28인승 1층 버스 2대, 41인승 2층 버스 4대, 64인승 오픈 탑 2층 버스 2대 등 총 8대가 운행되고 있다. 새 버스는 신설 코스에 1대를 투입하고 승객이 몰리는 해운대와 태종대 코스에 증차, 기존 40분인 배차 간격을 30분으로 줄여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역에만 설치돼 있는 시티투어 버스 전용 승강장도 승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5-6곳에 추가로 설치된다.

부산관광개발 관계자는 "2010년 458명이던 하루 평균 탑승객이 작년에는 500명을 넘기는 등 시티투어 버스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시티투어 버스 자체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서비스 개선 및 코스 다양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요금은 두 코스 모두 성인 1만 원, 아동 5천 원이다.

부산시 상징 광안대교 조명 LED로 바꾼다 가로등 1025개, 경관용 조명 1만1600세트 설치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9년여 만에 전면 교체된다.

부산시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이르면 내년 말까지 광안대교 조명을 고압나트륨등에서 LED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광안대교에는 가로등만 1025개, 경관용 조명은 5종류, 1만1600세트가 설치된다. LED는 특수 조명이기 때문에 등 한 개에 비싼 것은 2000만 원에 이른다.

광안대교 조명 교체를 위한 설계는 세계의 어떤 다리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공법으로 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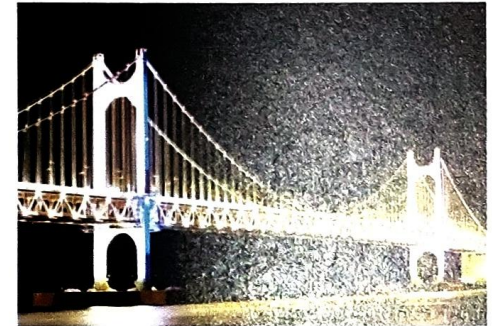
광안대교의 총길이는 7.4km.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난공사이기도 하지만 교량 안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광안대교는 통행이 제한될 정도의 초속 25m 이상 강풍이 자주 불어 위험한 데다가 염분이 조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검증해 해야 한다.

김형찬 부산시 도시경관과장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 교량전문가들의 확실한 구조적 해석이 동반돼야 설계가 가능하다. 등 설치로 케이블이 받게 되는 영향 등을 우선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LED로 등을 교체하면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LED는 반영구인 데다 안정기 등이 필요없다. 연간 유지보수비용만 15억6000만

원이 절감된다. 전기료 부담도 연간 1억2000만 원 적다.

김 과장은 "예전에는 80억 원을 들여 고압나트륨등을 교량부에 설치해 케이블 쪽으로 투광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8-9년에 한 번씩 등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LED로 바꾸면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계절별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게 되고, 6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내년 말까지 광안대교의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할 예정이다.

부산시민이 뽑은 부산 관광명소 기억에 남는 부산 여행명소 해운대·태종대·광안리·금정산 순

부산시민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부산의 여행명소로 해운대(18.9%)를 꼽았다. 다음으로 태종대(10.4%), 광안리(5.3%), 금정산(4.7%), 자갈치시장(3.5%), 이기대공원(3.4%) 순이었다.

부산광역시시는 지난 15일 2011년 부산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지역 2천808가구와 관광사업체 1천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 83%가 사내 곳곳의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을 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여행지역은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순. 1회 1인당 평균 여행경비는 숙박 9만4천900원, 당일여행은 3만4천8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민의 70.1%가 부산을 벗어난 국내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여행횟수는 1.86회, 여행지역은 '경남'이 가장 많았

다.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는 제주도 를 꼽았다.

부산시민의 15.2%는 해외여행을 경험했고, 평균 해외 여행횟수는 0.21회, 여행 국가는 일본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29.9%), 태국(13.2%), 필리핀(8.1%), 베트남(5%), 홍콩(4.2%) 순. 1인당 해외여행 경비는 145만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2.4%는 향후 해외 여행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것으로 '특화상품·인프라보완'(35.4%)을 지적했다. '관광서비스 수준 개선'(28.5%), '관광진흥 인력 육성'(10.1%), '레저스포츠 활성화'(5.2%)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앞바다 문화·관광·IT·세계적 해양도시 부산항만공사, 정부, 민간투자 10조원 투입, 2014년 까지 마리나시설 완공 계획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2008년 착공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북항 호안매립공사가 앞으로 2년을 계속해 2015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 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부산 앞바다에 총 113만여㎡(약 34만평)의 거대한 육지가 새롭게 생겨난다. BPA는 여기에 기존의 북항 배후 육지 부분 40만㎡를 연계해 북항 일원 153만㎡(46만평)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정부와 BPA는 이 사업에 2015년까지 매립 등 기반 조성사업비 2조원을 투입한다. 그 기반 위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2020년까지 세계적 규모의 친환경 워터프론트(Waterfront)·친수공간과 국제해양관광 거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노기태 BPA 사장은 "민간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10조원을 투입하는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전체 3단계로 나눠 진행 중인 기반 조성공사는 현재 외곽 호안 66%, 1~1단계 매립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항만과 배후 도심 재개발사업에 들어간다.

우선 해양매립지에는 환경친화적인 워터프론트 기능과 함께 미래형 복합 도심과 정보기술(IT) 및 첨단 전자지구를 조성한다. 북항 중앙부두 앞 바다에는 인공섬을 건설해 세계적 규모의 오피스하우스를 짓는 등 부산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이다. 크루즈터미널과 세계적인 마리나시설(요트·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도 유치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기존 부두시설들도 전면 재배치할 계획이다.

북항 배후부지는 부산의 구도심과 연계한 국제해양관광 거점지구로 새롭게 태어난다. 부산 구도심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어우러진 대규모 도시 재개발사업을 통해 세계인들이 즐겨찾는 매력적인 국제해

안관광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구상이다.

전체 사업은 지난 8월 매립부지 위에 신도시를 건설할 민간사업자가 나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우선협상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권소현 BPA 투자유치실장은 "부지 조성 단계에 머물던 북항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마리나시설 유치도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4월 BPA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싱가포르 SUT 그룹은 지난달 초 200억 규모의 계류장과 국제 인증 요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 등 2014년까지 마리나시설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세계 주요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외자 유치를 통해 마리나 시설 건립과 운영을 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정부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부산의 조차(駐車)·열차를 잇거나 때때 분리하는 곳시설 이전을 지원하는 등 부산역과 연계한 철도 및 해상 교통·물류수송 환승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항을 따라 기다랗게 늘어서 있는 부산역 조차시설을 이전하면 부산 구도심과 북항이 바로 연결되고, 53만㎡(약 16만 평)의 새로운 개발 가능 부지가 새로 생겨난다.

노기태 사장은 "북항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업과 물류 중심이었던 부산항이 지구촌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세계적인 미항(美港)으로 탈바꿈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해상 관문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감도

부산 다대항에 생태관광 해양관광단지 조성 2025년까지 인공비치지구, 해양레저스포츠, 복합해양도시, 마리나, 시푸드, 해양문화 등 6개 지구로 조성

부산 시하구 다대포 일대 70만㎡가 2025년까지 복합 해양관광단지로 조성된다.

시하구는 다대포 일대를 인공비치지구, 해양레저스포츠, 복합해양도시, 마리나, 시푸드, 해양문화 등 6개 지구로 개발하는 '다대포 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낙동강 하구의 '생태관광'과 다대항의 '해양관광'이라는 지역 특징을 묶어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인공비치지구는 다대1시장 6만㎡에 진흙, 자갈, 모래와 함께 어우러지는 해상반지점프대, 해상다이빙대, 해상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양레저스포츠지구는 성장목재 전면 방파제 일원 7만2천727㎡에 해양레저스포츠 종합터미널과 해양레저부스 전용터미널, 아카데미하우스를 신축해 서부산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으로 조성한다.

마리나지구는 현재 다대포항 2만1천703㎡에 자리를 잡은 수리조선

소5개를 가덕도로 이전시킨 뒤 국내 최대 슈퍼요트 전용항, 체류형 마리나 단지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다대어항 주변엔 수산물 전문백화점, 수산물 테마마켓타운, 수산 시푸드레스토랑 등을 건립해 시푸드 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삼매래피지 4만5천㎡에 수변 공연장, 바다영화관, 수변 해양테마파크와 크루즈터미널, 바다 버스 터미널, 관광위그스터미널 등을 설치하고 관광숙박시설, 휴양 및 의료관광시설, 국제비즈니스센터, 친수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해양리조트가 성장목재와 한진중공업 부지 32만4천926㎡에 들어선다.

시하구는 또 다대포해수욕장-울속도-명지까지 이어지는 강변대로에 에코버스 투어코스를 만들고 다대포해수욕장-낙동강 하구 아이산 전망대 구간에는 에코 트레킹 코스, 다대포해수욕장-낙동강하구 무인도-울속도에 탐조관광코스를 개발해 연계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북항대교 상량식 거행... 2014년 해안순환도로 완성 거가대로~울속도대로~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대로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망 완성

부산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 청학동을 바다 위로 잇는 북항대교가 드디어 다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남구 감만동 감만시민공원에서 북항대교 상량식을 갖고, 첫 상판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3천600t 크기 해상 크레인을 동원, 상판의 발판역할을 하는 주두부(主頭部, Pier Table)를 감만동 쪽 주탑과 청학동 쪽 주탑에 각각 설치했다. 북항대교는 주탑이 케이블로 상판을 집어주는 사장교, 2007년 4월 착공해 현재 공정을 68%를 보이고 있다. 190m 높이의 주탑 2개와 다리발 63개 중 40개를 완공한 상태다. 나머지 23개 다리발은 공사 중. 이번 상량식을 시작으로 41개의 상판을 모두 연결하면 다리의 모양을 완전히 갖는다. 개통은 2014년 4월.

북항대교는 다리 길이만 3천 331m, 국내 사장교 가운데 인천대교 다음으로 길다. 상판 폭은 18.6-28.7m, 4-6차로, 총사업비는 5천 384억 원이다.

북항대교는 부산 앞바다 해상 연결도로 중 마지막 구간이다. 개통하면 광안대교-북항대교-남항대교-울속도대로-거가대로로 이어지



▲부산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 청학동을 바다 위로 잇는 북항대교가 지난 28일 상판 상량식을 갖고, 다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는 해안순환도로망을 완성한다.



동북아, 크루즈 시장 '블루칩' 부상 '크루즈 시핑 아시아 2011' 에서 한국, 일본, 중국에 관심보여

지난달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크루즈 시핑 아시아(Cruise Shipping Asia) 2011'에 참가한 세계 크루즈 선사들은 아시아 시장 가운데 특별히 한국과 일본, 중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매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크루즈 컨벤

션 행사인 '크루즈 시핑 마이애미'를 주관하는 업체인 UBM의 자회사가 주최한 이번 아시아 행사에는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 기간 RCCL을 비롯해 코스타 크루즈, 스타 크루즈, 시본 크루즈, 오라이언 크루즈 등 세계 주요 선사들이 참여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상품의 성공 전략 등을 점검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크루즈 시핑 아시아 2011'은 아시아, 특히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세계 크루즈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 대형 선박 위주의 크루즈선이라는 기존 통념을 깨고 소형 선박을 이용한 상품도 제시되는 등 크루즈 산업이 다변화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이번 행사 기간 시본 크루즈와 오라이언 크루즈 등 그동안 한국 시장에 크루즈선 투입을 자제했던 선사 대표들이 직접 부산항만공사(BPA) 대표단과 만나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 도전과 기회... 치열한 홍보전
아시아 각국은 이번 행사에 별도 홍보관을 개설해 크루즈선 유치전을 벌였다. 한국홍보관은 세계 속의 부산항 위상을 알리고 제주와 여주의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를 소개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타이페이,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피푸아뉴기니 등의 홍보관은 자국의 바다 관광지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형상화해 표현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일본 측은 이 행사를 추락한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공연단까지 꾸리는 등 대규모 홍보단을 파견했다.

한국홍보관에는 부산항 기항을 새롭게 타진하려는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BPA의 빅호텔 마케팅팀은 현장 회담 등으로

비엔 일정을 소화했다.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은 중국 관광객 유인을 위해 한국 시장을 바탕으로 인근 국가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투어 상품을 주로 거론했다.

부산시 김희천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 크루즈 선사의 부산항 신규 취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을 개발해 더 많은 선박을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은 "인센티브에다 관광지 투어 노선의 다양화'를 희망하기도 했다. 오는 2014년 부산항 북항에서 개장하는 신실 크루즈터미널의 카지노 시설 건립 여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선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갈수록 성장하는 동북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의 도전과 기회'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에 눈길을 돌리는 신세대를 향한 마케팅 전략은 물론 크루즈선의 건조와 수리 산업 동향, 크루즈터미널의 새로운 디자인 전략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돼 높아진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위상을 반영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크루즈 승객들이 방문국의 고유 문화를 탐방하는 노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고착됐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앞으로 그 같은 추세에 맞는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국적해운사 운항 크루즈 관광시대 개막 하모니크루즈(주), 1월 중순 중국·일본·러시아 등 운항



부산항에 최초로 투입되는 크루즈선인 '하모니 프린세스호'

국적해운사인 하모니크루즈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2만5천568급 크루즈 선박인 '하모니 프린세스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하모니 프린세스호가 모항인 부산항에 입항하면, 간단한 수리를 거쳐 1월 중순에 부산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한·중·일·러 4개국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노선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모니크루즈 측은 부산-제주, 부산-여수 등 우리나라 주요 항을 기점으로 중국(상하이·다롄 등), 일본(오사카·후쿠오카·나가사키 등),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간에 3박4일, 4박5일 등 다양한 코스 및 일정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하모니 프린세스호는 선박 길이 176m, 폭 25.75m, 9층으로 축구장 2개 크기이며, 총 383개 객실에 최대 승선인원은 1천303명(여객 1천명·승무원 303명)이다. 특히 수영장과 카지노, 뷔페, 대형극장, 휘트니스 클럽,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춘 유럽 정통 스타일의 크루즈 선박이다.

하모니크루즈는 국내 해운사가 운항하는 최초의 크루즈 관광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다수 고용해 언어 소통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식을 포함해 국내 관광객의 입맛에 맞춘 최고급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외국 크루즈 선사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다.

하모니크루즈는 국내 벌크 선사인 폴리스쉬핑이 100% 출자한 크루즈 전문 운영 선사다. 모기업인 폴리스쉬핑은 포스코·한진 등의 원자재를 장기운송계약으로 운송해오고 있다.

하모니크루즈는 부산항을 모항(母港)으로 국내 해운사가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크루즈 관광시대가 열린다.

해운 증권사인 폴리스쉬핑(주) 자회사인 하모니크루즈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2만5천568급 크루즈 선박인 '하모니 프린세스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하모니 프린세스호는 간단한 수리를 거쳐 1월 중순에 부산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한·중·일·러 4개국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노선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모니크루즈 측은 부산-제주, 부산-여수 등 우리나라 주요 항을 기점으로 중국(상하이·다롄 등), 일본(오사카·후쿠오카·나가사키 등),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간에 3박4일, 4박5일 등 다양한 코스 및 일정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하모니 프린세스호는 선박 길이 176m, 폭 25.75m, 9층으로 축구장 2개 크기이며, 총 383개 객실에 최대 승선인원은 1천303명(여객 1천명·승무원 303명)이다. 특히 수영장과 카지노, 뷔페, 대형극장, 휘트니스 클럽,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춘 유럽 정통 스타일의 크루즈 선박이다.

하모니크루즈는 국내 해운사가 운항하는 최초의 크루즈 관광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다수 고용해 언어 소통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식을 포함해 국내 관광객의 입맛에 맞춘 최고급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외국 크루즈 선사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다.

정부 크루즈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예정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하모니 크루즈에



우리나라 크루즈선에 카지노가 개설된다. 단 외국인 전용 카지노여서 내국인은 갈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크루즈 사업자의 선상 카지노 영업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엔 취항하는 국내 1호 크루즈업체 주하모니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설치될 예정이다. 호텔 카지노를 포함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는 국내에서 17번째다.

◇ 급성장하는 크루즈 관광

크루즈 관광은 극장, 식당, 수영장, 카지노 등 부대시설이 딸린 크루즈선을 타고 몇 개국을 돌아보는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 크루즈선을 타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2007년 3만2천600명에서 지난해 15만4천명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은 2000년 1200만명에서 2007년 1600만명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중국인들이 크루즈 관광을 선호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이같은 성장세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국내 크루즈 관광은 이제 첫발을 떼는 수준으로, 주하모니크루즈가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내년 2월 취항을 앞두고 있다. 이 회사는 포함·관광제철소의 철광석 운반회사인 풀라리스 슈핑의 자회사다.

그동안 국내 크루즈 관광에는 법적 장애가 있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에 외국인 승선실적이 있어야만 크루즈선에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다. 신생 업체가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1년 이상 크루즈선을 운항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은 카지노가 핵심시설의 하나인데 1년 이상 카지노를 없이 운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실적 부진

카지노 업계에선 내국인 허용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기대한다. 국내에는 서울 '세븐리' 파라다이스위커킴 등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지난해 16곳의 외국인 카지노 가운데 10곳이 적자를 봤다. 16곳의 매출액 합계는 1조57억원, 강원랜드 한 곳매출액 1조2568억원보다 적다.

이처럼 실적이 좋지 않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병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에게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오자 발언을 철회했다.

선상 카지노는 기존의 외국인 카지노업체와는 달리 실적이 좋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관광객들이 배 안에 묶여 있는 상태라 카지노 출입이 잦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보이저 오브 더 씨즈' 호, 올해 부산에 9차례 입항 BPA, 부산항을 동북아 크루즈 중심항으로 육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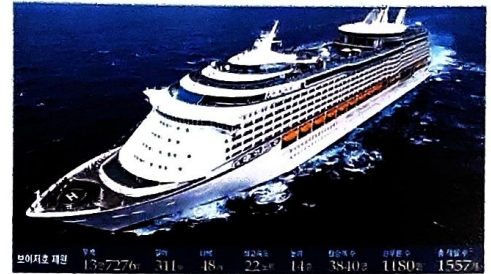
세계 2위 크루즈선사인 미국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RCI)은 "아시아 최대 크루즈 선박인 '보이저 오브 더 씨즈(Voyager of the Seas)'호가 오는 7월 부산항에 처음으로 입항한 뒤 8차례 더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크루즈 선박은 무게 13만7천27톤, 길이가 311m다.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크루즈선박이자 부산항에 입항했던 크루즈 선박 중에서는 가장 크다. 지금까지 부산항에 모항 입항한 선박 중 가장 큰 것은 RCI 소속 레전드 오브 더 씨즈(Legend of the Seas)호로 6만9천130t이다.

14층 높이인 이 배는 승객을 최대 3천84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승무원이 1천180명이나 돼 승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배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수영장과 3층짜리 대극장, 카지노, 암벽등반시설, 미니 골프장, 복층 나이트클럽 등은 물론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ice-skating rink), 인라인 스키장, 백화점 못지않은 공간을 자랑하는 쇼핑거리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내년 부산항에는 로열캐리비안 크루즈와 코스타 등 주요 크루즈선들이 역대 최대인 155차례 입항, 관광객 28만7천여명을 실어 나를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항에는 77척의 크루즈선박이 입항했지만 올해는 일본 대지진 여파 등으로 43척으로 줄었다.

BPA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2014년 국제복합터미널을 완공하는 한편, 부산 영도구 국제크루즈터미널도 확장해 부산항을 동북아 크루즈 중심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선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관계기관 공동 설명회, 캠퍼 등도 열 예정이다

'해양 레저의 꽃' 요트산업

요트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적 육성

정부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대책을 내놨지만 크루즈와 함께 '해양 레저의 꽃'으로 불리는 요트산업은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기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마리나업계에 따르면 국내 요트 인구는 면허 취득자 기준으로 2000년 6천명에서 현재 3793명으로 10년 만에 60배나 늘었다. 요트 등록도 가파른 증가세다. 2008년 2천에서 현재 240척까지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뚝 떨어진 요트 외에 모터보트까지 합치면 7000척 정도가 운항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도 3만명으로 추산된다. 2년 새 요트클럽도 16개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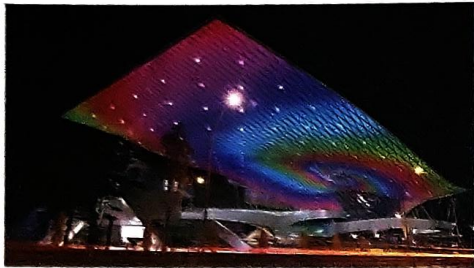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요트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

다. 현재 12곳에 불과한 마리나(요트 정박장) 시설을 대폭 늘리고 요트 수요 저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 세계 요트 시장 규모는 연간 400억달러(44조원)에 달한다. 매년 100만척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만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요트 시장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이 60~7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요트 생산업체가 1100개, 영국도 600개를 넘는다고.

하지만 국내 요트 생산 기반은 초라한 수준이다. 대한마리나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요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20여개로 총업원은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대부분 연 매출액이 수십억원대의 영세업체다. 마리나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요트는 1척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이 여행자들의 새로운 로망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산 올드&뉴' 조선일보 특집기사 Why?가 간다



조선일보 주일섹션 'Why?가 간다'는 지난 토요일(19일) 부산 올드&뉴를 주제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서울에 살면서 부산을 정기적으로 찾아 떠나기를 얻고 가는 부산 마니아 들을 취재, 낯음과 새로움, 밑바닥과 최첨단이 혼재한 해양도시 부산이 여행자들의 새로운 '로망'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보다 두 배 많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Why?가 간다는 지난 10년 사이 '해운대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감탄했다. 초고층빌딩이 들어선 마린시티의 야경이 '홍콩, 뉴욕 못지

않게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 센텀시티는 '부산의 맨해튼'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개관한 '영화의 전당'과 벡스코에 대해서는 "해의 관광객 유치의 중심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회의만 223건으로 4천9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얻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2006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주변 산책은 '해운대 여행의 필수코스'로 꼽았다.

Why?가 간다는 부산의 '원도심' 남포동, 광복동 일대도 KTX 덕분에 "뜨고 있다"고 언급했다. 모처럼 남포동과 광복동을 찾은 여행지라면 서울 명동만큼이나 복잡하고 활기 넘치는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도 했다. 광복동 패션거리, 분식의 메카로 불리는 강동시장, 국제시장의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마니아들로 거리가 북적인다는 것. '이승기 호떡'으로 더 유명해진 칠팔새앗호떡을 요즘 남포동 노점상의 핫이템이라고 소개했다.

Why?가 간다는 사하구 감천동 문화마을을 언급하며 '피린민'의 도시 부산은 공목투어의 성지'라고 소개했다. 감천마을 주민들은 재개발 대신 문화와 스토리를 선택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공목공목을 향수 어린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 아시아의 산토리니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꼭 들려 볼 것을 권했다.

동남아 휩쓴 한류열풍, 태국인 관광객 몰려온다

한국 방문객 증가율 중국이어 2위, 씬쌌어도 일본 앞질러

세계적인 관광 대국 태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여행지로 최고 인기였다. 2000년대 중반 태국을 찾았던 한국인은 연간 100만여명에 달했다. 지금도 태국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여행사와 숙박업소는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최근엔 홍수로 인해 한국인의 태국행 열기가 주춤한 사이 태국 관광객의 한국행이 거꾸로 찾아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태국은 일본·중국·미국·대만·필리핀에 이어 방한객이 여섯째로 많은 나라다. 2009년엔 1년 전보다 관광객이 18% 늘었고, 작년에도 전년 대비 20.8% 늘었다. 국내를 찾는 해외 관광객 증가율을 보면 중국(2009년 14%, 2010년 39%) 다음으로 높다.

돈 씬쌌어도 태국은 이미 일본보다 '큰손' 고객이 됐다. 지난해 태국 관광객들이 지출한 금액은 1인당 1392달러, 일본 관광객(1070달러)

수준을 넘었고, 최근 최고 큰손인 중국인 자출액(1672달러)에 약간 못 미친다.

태국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뭘까. 동남아를 휩쓴 한류(韓流) 열풍이 최대 이유다. 2003년 '대장금', 2005년 '풀하우스' 등 한국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슈퍼주니어' 같은 한류 스타가 공연을 할 때면 태국의 청소년들이 10만원 정도 하는 공연 티켓을 들고 대형 운동장을 가득 메울 정도다. 왕족의 영향이 큰 입헌군주국 태국에서 우물라타나 리자킨아 공주를 비롯한 사회 최상류층이 한류 열성 팬이라는 사실도 한몫했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을 돌파한 남이섬은 관광객 절반(5만명)이 태국인이다. 지난해 태국 영화 '헬로 스트레인지'를 남이섬에서 찍은 이래 인지도가 높아진 덕분이다.

따라서 관광공사 관계자는 '태국 등 동남아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VIP 고객과 동일한 서비스를 외국인 VIP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도시 브랜드 2위 올라

의료, 관광, 국제 전시 등 다양한 분야, 자산가치 77조7천840억원

부산시와 울산시가 전국 6개 광역시와 서울시 등 국내 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서울시에 이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1 도시브랜드 자산가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 2위를 각각 차지했고, 울산시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 3위로 한단계 뛰어올랐다. 지난해 3위였던 인천시는 올해 3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2002년 아시아게임 및 월드컵 유치, 2006년 부산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와 부산 국제영화제 개최, 2010년 국제회의 개최도시 아시아 4위, 세계 17위 명성을 얻고 있는 부산시의 도시브랜드 자산가치는 올해 77조7천84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부산시의 브랜드 파워 지수는 국내 7대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만 마련과 부산 광역시 도시브랜드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부산시가 구체적인 계획하에 의료, 관광, 국제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같은 도시브랜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각 도시의 3개년 가중평균 지역내 총생산(GDP) 대비 브랜드 가치의 비중은 부산(55%), 서울(54%), 대전(48%), 인천(47%), 울산(47%), 대구(45%), 광주(44%) 순으로 높았다. 한편 도시 브랜드 자산가치 평가는 과거 3개년의 지역내 총생산을 현재화한 후 가중평균한 재무적 자료,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거주·투자·관광 측면에서의 도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및 도시 브랜드 의존도를 반영해 최종 산출한 것이다.

부산시민 20년후 지금보다 4배 더 도심공원 갖게 돼

명품공원 6곳, 부산시민공원, 55보급창, 해운대수목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장림유수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시는 2030년 부산시 증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또 명품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시민공원, 55보급창, 해운대 수목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장림유수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6곳이다.

녹지 측면에서는 녹지벨트와 생태 통로, 그린웨이(갈매길·둘레길 등 총 460km),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6개 산림축, 5개 하천축, 3개 권역으로 나눠 생태통로 조성, 녹지 배치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하고, 앞으로도 옥상·입면·학교 녹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덕공원, 대항공원, 불광산공원, 달음산공원, 중앙공원 등 5곳(3천224만㎡)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토지수용 의무는 없다. 시민 도시공원 면적 4배=이렇게 공원이 조성(8천744만㎡)되고 나면 부산시민(410만 명 추산) 1명이 누리는 도시공원 면적은 21.3㎡가 된다. 지금(6.3㎡)보다 네 배 정도는 다.



시가지지역 녹피울공원녹지·농지·초지·수림지 같이 녹지가 덮고 있는 면적 비율도 9.5%에서 15%로 늘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모두 4조4천735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역시 재원조달이 관건이다.

부산시의 이 같은 전망은 기존 미집행 도시공원이 완전히 조성됐다는 전제 아래 추산된 것이다.

부산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산 꿩길 갈맷길, 구간 잇고 종주길로 연결



부산의 걷기 좋은 갈맷길들이 그물망처럼 이어져 하나의 길로 다시 태어난다. 부산시내 21개에 달하는 갈맷길이 꿩길 구간 없이 모두 연결, 기장군 임랑해변도로부터 강서구 가덕도 해변까지 섬 없이 걸을 수 있는 부산 종주길로 거듭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에는 갈맷길을 1개 길, 9개 코스, 21개 구간으로 새 단장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이고,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길로 만드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갈맷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실시설계'를 수립, 지난 5일 부산시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2월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부산시는 계획에 따라 갈맷길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절 구간을 모두 잇는다. 이를 위해 해운대 동백섬-광안리 해수욕장 등 6개 구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급경사 숲길인 장산 너덜길 등 접근성·쾌적성·안정성·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8개 구간은 갈맷길에서 뺀다.

이를 통해 그물망처럼 연결된 갈맷길은 9개 코스를 운영한다. 1코스는 임랑해수욕장-해운대 문탠로드, 2코스는 해운대 문탠로드-오륙도 선착장, 3코스는 오륙도 선착장-태종대 유원지, 4코스는 남항대교-낙동강하구둑, 5코스는 낙동강하구둑-가덕도 놀치초등학교, 6코스는 낙동강하구둑-성지곡수원지, 7코스는 성지곡수원지-회동수원지 상현마을, 8코스는 상현마을-온천천 민락교, 9코스는 상현마을-기장역 등이다. 각 코스는 2-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모두 21개의 구간이 있다. 갈맷길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한다.

여수엑스포 관람객 "부산 유치 위해 총력"

부산이 5월 개막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특수를 이용, 내·외국인 관광객을 부산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부산-여수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공식 숙박업소를 지정하는 등 여수를 찾은 관람객을 적극 유치에 나섰다.

해남시 부산시장, 제중모 부산시의회 의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발전협의회 임원, 지역 공식숙박업소 지정업체 대표단 등은 지난 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강동석)와 박람회 현장을 찾아 부산 지역 호텔에 대한 공식숙박업소 현판을 수여하고 입장권 단체 구매를 돕기로 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및 행사를 가졌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부산지역 호텔 20곳(총 4천여 객실)을 공식숙박업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식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부산의 손님맞이 준비도 분주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공식숙박업체 지정과 더불어 박람회 기간 부산-여수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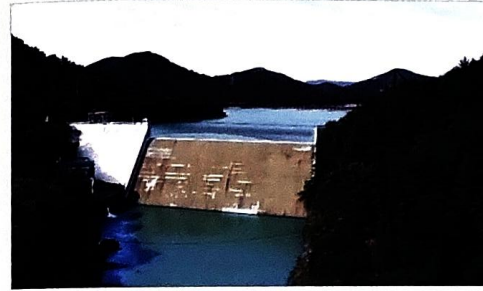
크루즈 운항과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해양포럼 같은 내년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박람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가 해양을 주제로 열리는 최초의 박람회여서 부산발전협의회 회원들은 현장에서 박람회 입장권을 단체로 구매해 해양도시 부산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박람회장 지지체내 내 부산 전시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직위로부터 부산 전시관을 이관 받아 박람회 기간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부산의 발전상과 미래비전을 널리 알릴 나감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2009년 7월 경제, 언론, 관광, 시민단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산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킨 이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 블로그(다음, 네이버)에 박람회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시청사 내에 박람회 홍보조형물을 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회동수원지에 출렁다리 놓는다

길이230m, 폭2m 순환산책로로 연결, 주말 시민, 관광객 2,000명 넘게 찾아



부산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있는 회동수원지 수변산책로에 출렁다리가 설치된다. 부산 금정구는 회동수원지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보행자 전용 출렁다리를 조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굳게 닫혀 있던 회동수원지가 산책로로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해 초 금정구 선동과 회동동을 잇는 운산 지리를 따라 총 길이 9.5km의 수변산책로가 조성되면서 부터이다. 지난 6월에는 반대편 오른쪽 아홉산에도 6.3km의 숲길이 완성됐다. 이 길은 걷기 열풍과 맞물려 주말과 휴일에는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명품 산책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순환 산책로가 회동수원지를 미주 보고 양쪽으로 따로 조성된 산책로가 회동 댐에 가로막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환코스를 즐기려는 시민들은 회동댐 아래 마을인 회동동 99번 시내버스 종점까지 약 2km를 둘러서 다시 반대편 숲길로 들어셔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금정구가 추진 중인 출렁다리는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 주며 19km에 달하는 전체 순환코스를 2km정도 단축시키게 된다. 회동댐 상류에 길이 230m(진입데크 50m 포함), 폭 2m로 계획 중인 출렁다리는 수원지를 마주보고 운산과 아홉 산에 각각 조성된 명품 산책길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정구는 약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까지 다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출렁다리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충남 청양군 천장호를 답사하는 등 사전조사를 끝내고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다리가 관통하는 수면 중간에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는 현수교 형식으로 만들어져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며 "단절된 산책로를 잇는 역할과 함께 뛰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래 금강공원 새 단장

동래금강공원 250억원 들여 2015년까지 대대적 시설 정비

부산시는 온천동 금강공원을 드림랜드(Dream Land)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20만6천㎡의 면적에 사비 197억원, 민자 666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정비되는 것이 놀이시설이다. 기존 시설 부지매입과 영업보상 명목으로 30억원을 내던 예산에 편성했다. 면적도 기존보다 3배 가까이(2천400㎡→6천400㎡)는다.

전체 공원 새 단장은 2015년까지 진행되지만 놀이시설은 이르면 내년 연말에 개장된다. 공원 내 매점 54곳은 철거가 진행중이다. 민자로 추진할 사업 중에 어린이 직업체험관, 다목적 문화회관, 전

통체험장, 다도체험장은 이르면 다음주에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케이블랩 정비도 사업자 측과 협의가 됐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해남시 부산시장은 "케이블랩 재가설에 대해 기존 업자도 긍정적이다"며 "입구를 정비하고, 정상에 전망대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외 미니 동물원, 금강공원 리모델링, 산악형 레저시설, 미니 테마 파드 등이 들어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문광부 관광공사, '한국의료관광 총람' 발간

한국의료관광 추진전략, 마케팅 활동 실적, 통계자료 등 수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와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록한 '한국의료관광 총람'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람에는 의료관광산업의 개념과 구조, 해외 경쟁국 현황, 한국의료관광 추진전략 및 마케팅 활동 실적, 관계 법령 및 통계자료 등이 수록돼 있으며, 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가 공동으로 전개해온 타깃시장별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 및 실적도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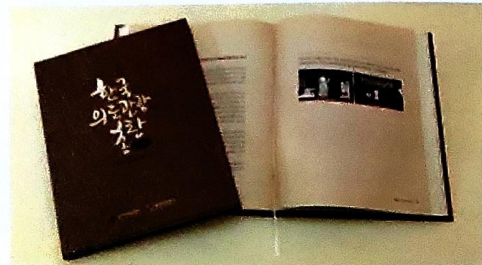
총람에 따르면 한국을 다녀간 의료관광객은 2009년 6만201명, 2010년 8만1,788명을 기록했고, 올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11만 명이 넘는 의료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는 총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과 의료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 창출에 더욱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가 21.2명으로 제조업(9.8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료관광객은 일반관광객보다 체류기간이 길고 소비액이 크고 진

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용 외에도 관광비용, 동반가족의 소비액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의료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총액이 3,558억원에 이르고, 2015년에는 1조 2,740억원, 2020년 5조 5,1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책자에는 의료관광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등록절차부터 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사례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각 장의 말미에는 8개 의료기관 및 3개 유치업체의 성공사례를 수록해 의료관광 사업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부산항, 세계적 수준 '관광 미항' 으로 꾸며진다.

인천항, 제주항도 신규 국제 터미널 착공

올해부터 부산항을 비롯해 인천항, 제주항 등 3대 항만은 '국제 크루즈 거점항'으로 조성되는 한편 각종 미관저해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세계적인 미항(美港)인 홍콩과 호주 시드니와 같은 '아름다운 항만'으로 꾸며진다.

부산항과 인천항, 제주항에 신규 국제여객 터미널이 착공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도, 전남 여수시 등 전국 5개 항만에 신규 국제여객 터미널과 크루즈 전용부두가 운영된다.

올해 하반기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하반기에 부산항 미항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항을 시작으로 인천, 제주도 등 지정학적 입지와 배후 관광자원이 우수한 3대 항만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 미항으로 단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부산항 영도 지역의 수리조선단지·유류탱크 등 이전을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항만내 공해해소 시설, 미관 저해시설 등을 도산지와 이격된 장소로 대체이전·집적함으로써 항만을 청정공간화할 계획이다.

연인 유희지를 활용한 오토캠핑장 등 실속형 체류시설도 조성된다. 정부는 부산 송도, 울산 대왕암,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등 매년 5곳

씩 5년간 25곳의 연인 유희지를 활용한 대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육상폐기물도 수용 가능한 광역 투기장이 서해·남해권에 조성되며, 추후 도시·산업·물류용지, 천수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부산항에 피더항로 확대, 환적화물 유치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항만으로서 부산항의 지위를 강화하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도 이뤄진다.

특히 부산 신항의 경우 1월에 2-3단계 4선식 운영을 개시하고 10월엔 남컨테이너부두 임항철도를 개통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2-6단계 2선식을 착공하는 등 부두, 배후단지 및 수송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항로 증심준설(15~16m)도 실시된다.

부산 남항, 울산 방어진항 등 해양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울산항에 오일전용 보관·환적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해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부산 신항에 선박유류병커링 기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항엑스포' 개최방안 검토

국제 수산관광지 개발로 국가 사업진행

국제박람회기구(BI)가 공인하는 전문박람회의 부산 개최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1876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항한 부산 남항 일대의 수산관광단지 개발이 국가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중간 공역보고회에서 2020년부터 2027년 사이에 세계 근대수산과 개항사를 한데 모은 '세계개항엑스포(부산항엑스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테마는 '항(港)'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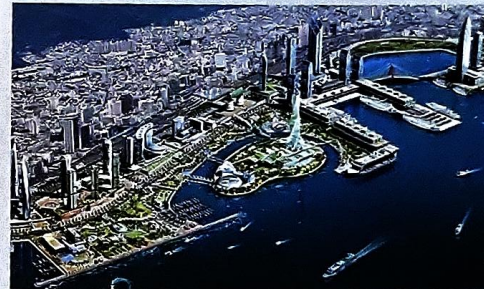
이와 함께 엑스포지원시설 등으로 활용될 부산 남항 근대유산 프

젝트 가 이날 공개됐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상지이자 수산업의 중심인 남항 일대(해역을 포함한 전체 면적 146만6000m)는 3개 권역(중·서·영도권)으로 나누어 수산과 근대역사를 접목한 관광지로 탈바꿈된다. 부산항엑스포의 참여 대상은 우리나라 근대사와 인연이 있는 국가와 해안을 통해 개항을 알린 도시가 있는 나라 등이다.

이처럼 '부산항엑스포'가 성사된다면 1993년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 열린 '대전엑스포' (주 테마 과학)와 2012여수엑스포 (해양)에 이어 세번째 BIE 공인 전문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북항 재개발지 내 관광유통지구 신설

녹지공간 대폭 늘려 차별화



공계획과 많은 차이점을 드러냈다. 수정안은 기존 사업계획의 공간 체계 골격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공간체계를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사업자 측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이 들어설 관광유통지구(1만 6629m)를 새로 만들고 주거시설에 거주할 입주인 자녀의 통학 안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2만1866m 규모를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항 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중앙에 있던 대규모 공원을 분산 배치해 이용성을 향상하고 공공성도 높였다. 공원과 녹지 공간은 당초 규모(19만7797m)보다 1만1189m 늘어난 20만8986m로 확정됐다.

수변 산책로를 기존(3.2km)보다 무려 174% 늘린 7.8km가량 조성해 송도-북항-동천-서면을 연계하는 워터프론트 체계를 구축하고, 1.2m에 불과했던 경관수로는 2.2m로 늘렸다. 현재의 연안여객터미널과 구름다리를 그대로 살려 부산항 역사 및 문화 체험공간으로 재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상부시설을 건설할 민간사업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관광유통지구를 신설하고, 녹지 공간과 수변 산책로 등을 대폭 늘려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지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개발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안을 제안했다.

GS건설 컨소시엄 측이 내놓은 제안서에는 그동안 알려진 토지가

광안리 해양 스포츠 센터, '컨벤션 요트' 띄운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컨벤션 요트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항하는 요트는 길이 16m 규모의 26인승(24) 카터마린이며 침실과 샤워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코스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출발해 광안대교, 해운대, 동백섬을 돌아 다시 광안리로 돌아오게 된다.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는 벅스코에서 열리는 국내외 학회와 기업행

사, 전시회, 유관기관 행사 참가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14억여원이 투입된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는 지상 1층 면적 571m 규모로 정비보관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윈드서핑, 요트, 바나나보트, 카약 등 20여종의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160개 나라 정부대표와 내·외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부산시·장춘시 국립병원 의료관광 MOU 체결 부산 의료관광 활성화 동력 될 것으로 기대

부산시와 중국 장춘시가 의료관광과 의료서비스 교육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의료서비스 교육기관 KHC대표 임지민에 따르면 장춘시 국립병원들의 병원장을 비롯한 간부 등 13명이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와 의료관광 및 의료 서비스 교육을 위하여 부산을 방문했다. 또, 부산시와 장춘시는 지난 20일 시청 7층 의전실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도 체결했다.

장춘시 병원 대표단은 장춘시 위생국 진명규 처장, 길림국건설부인과 장미영 원장, 길림골상병원 임일량 총경리 등 13명이다.

중국 길림성은 인구 2천700만명 규모. 이중 장춘시 인구는 700만명으로 50여개의 종합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1만명 규모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장춘시가 부산시와 의료 관련 교류를 희망하는 것은 부산의 뛰어난

난병원 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배우기 위해서다.

이번 대표단 부산방문은 앞으로 장춘시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산에서 의료서비스 교육을 받는 첫 일정으로, 병원 대표단은 부산 세화병원에서 의료서비스 교육을 받은 후 좋은문화병원, 좋은강안병원, 은성의료재단 등을 견학할 예정이며, 또 해운대 누리미루APEC하우스, 해동웅공사 등의 관광지와 쇼핑센터도 방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국 장춘시 국립병원장 일행의 부산방문은 부산의료관광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KHC 임지민 대표는 "이번 병원장들의 부산방문은 환자를 부산으로 보내주는 차원의 교류가 아닌 장춘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산에서 의료서비스 교육을 받는 것"이라며 "장춘시에는 종합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료서비스 교육 수요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리조트 해운대, 고급 비즈니스 호텔로 변신

한화리조트 해운대 가 고급 비즈니스 호텔로 변신한다. 한화호텔&리조트는 해운대 티볼리(TIOLLI) 가 리뉴얼 공사를 완료하고 26일 다시 문을 열었다.

해운대 티볼리의 객실(417실)은 10년만에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기존 리조트에는 없는 콘셉트로 호텔형 객실(58실)과 금연 객실(42실)을 선보인다. 이곳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취사를 제한했다. 리조트업계의 트렌드인 고급화 전략에 따라 호텔형 객실을 늘리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리뉴얼공사 이전 4가지 형태였던 객실은 커플을 위한 커플존,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패밀리존, 단체 행사를 위한 그룹존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4가지 타입으로 꾸며졌다. 전 객실에는 벽걸이형 TV와 와인잔, 무선 전기 포트가 비치됐다.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축,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특급호텔과 같은 고급서비스도 제공된다. 입·퇴실 절차를 간소화해 투숙 카드를 작성하고 기다리던 모습이 없어지게 된다. 고객이 직접 스테이를 버리는 기존 시스템도 개선됐다.

리조트에 들어서면 차량이 멈춰서는 순간 도어맨이 고객을 맞는다. 체크인을 비롯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 데스크와 로비 매니저가 신설됐다.

비즈니스 객실을 예약할 때 미리 산청하면 노트북이나 프린터를 빌릴 수 있고 회의실 대여와 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합리적 가격의 고품격 뷔페 레스토랑도 마련됐다.

송대양 한화리조트 해운대 본부장은 가족, 연인, 비즈니스맨, 해외관광객이 많은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객실에 변화를 줬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과 고급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무허가 게스트 하우스 관광부산 이미지 흐리게 해 부산지역 등록업체 21곳, 무허가 50곳 넘어

젊은층이나 외국인 자유여행객이 선호하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부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부산에는 현재 21곳(시청자료)을 제외한 게스트하우스가 등록본지 10호 참조) 돼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30여곳이 넘는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개조해 암암리에 관광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곳까지 합치면 해운대지역에만 모두 50곳이 넘는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올 봄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일종의 민박 개념으로 기존 민박에 비해 시설이 깨끗하고, 가격 역시 1인당 2만~3만 원상수기 제외)으로 인근 호텔 등에 비해 훨씬 저렴해 주로 젊은 층이나 외국인 자유여행객이 선호하고 있다.

구칭에 등록된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구칭으로부터 '굿스테이(추천 숙박업소)로까지 지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구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 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일반 주택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무허가 게스트하우스 대부분은 숙박요금 결제 때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고집하고 있어 세금 탈루 의혹이 짙은 뿐 아니라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손님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어 낭패를 보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성수기 때에는 요금을 턱없이 올려받아 이용자와 바가지 요금 시비가 일기도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상당수의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들이 간판을 걸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영업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갈매기 · 여배우 상징 조형물 - 영화의전당 새 명물로

영화의전당 미술장식품 제작 · 설치 국제공모에서 독일인 랄프 젠더가 제출한 입체조형물 'Lady-Bird-Transformation(Mirage)' 가 1위 작품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영화의전당 미술장식품 제작 · 설치 국제공모 결과 국내외를 포함해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 9개국에서 출품한 106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다. 심사 결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서울대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인 랄프 젠더의 작품을 1위 작품으로 선정했다.

랄프 젠더의 'Lady-Bird-Transformation' (여인-새 변형)의 정면 모습. 부산시청 제공



부산, 2014년 까지 해양 · 영상 · 창조 · 도시 이미지 구축 도시브랜드 3개년 계획 수립

부산이 오메라 하우스 건립, 영화의 전당 관광 상품화, 갈매기 브랜드화, Bridge of Busan 세계 명품화 추진 같은 주요 사업을 통해 명품 도시로 거듭난다. 부산만의 매력을 담은 30개 사업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 · 영상 · 창조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부산광역시시는 지난 9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브랜드 3개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에 2012년~2014년까지 해양문화, 영화 · 영상 산업, 창조 · 도시재생, 브랜드 홍보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10대 중점과제와 30개 세부추진사업을 펼칠 것을 논의했다.

시는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 산복도로 르세상스 사업

의 경우 주민들의 이야기를 입히는 식, 부산갈매기 응원문화처럼 자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특한 브랜드 자원도 발굴 · 개발한다. 영화의 전당의 영화제 · 뮤지컬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상품을 개발하는 등 '로맨틱 시네마 시티'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각 부서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브랜드 사업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도시브랜드 평가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인 피드백도 전개할 계획.

부산시 도시브랜드위원회는 지난해 11월26일 제정 · 시행한 '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15일 출범했다. 이권상 위원장을 중심으로 30여명으로 구성, 부산의 대내 · 외적인 도시 위상과 가치 제고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동부산 관광단지,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

부산시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6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부지 11만3천10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400억원 규모로 부산시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6회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체결은 369만3천㎡에 달하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올해 변경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분양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과부는 또 29일 조일청 발주를 통해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1천3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 발주) 방식으로 건립된다. 개관은 2014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과학기술로 돌려 미래의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시설로 오랜 노력 끝에 2010년 유치에 성공했다.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사업이 분개도에 오르면서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및 운동 · 휴양지구 개발과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 · 울 · 경, 중국 춘절 관광객 잡기 '함께' 상하이서 공동 관광설명회 ... 현지 여행사 방문 마케팅

부산 · 울산 · 경남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 1월 22~28일) 특수를 이용, 중국인 관광객 잡기에 힘을 모은다. 3개 시 · 도가 함께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체류기간별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 것.

부산 · 울산 · 경남 3개 시 · 도는 지난 12~15일 부산 자매도시인상 하이 및 인근 도시에서 공동 관광설명회를 가졌다. 서울, 제주지역으로 집중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동남권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3개 시 · 도가 참여하는 동남권관광협의회가 8명의 관광 홍보단을 구성해 파견한 것.

홍보단은 지난 13일 상하이서 더 번드하이트 호텔에서 현지 최대규모 여행사와 기자단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마련, 동남권 지역의 관광자원과 체류기간별 코스를 소개했다. 3개 시 · 도는 △부산의 축

제 · 쇼핑 · 온천 체험 △울산의 산업 · 자연 경관 △경남의 사찰 · 역사 유적지나 거가대교 등 관광자원을 지역별 · 테마별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 여행업체를 직접 방문, 축제 · 체험 프로그램 등 대표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활동도 펼쳤다. 3개 시 · 도는 현지 여행사들과 제휴를 통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동남권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강희천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관광마케팅은 부산을 비롯 울산, 경남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동남권이 하나의 관광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직항노선이 있는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항공 · 여행사간 제휴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포동 부산종합관광안내소, 유모차 · 휠체어 무료 대여 유아 동반가족 · 장애인 대상

남포동에 위치한 부산종합관광안내소가이면 무료로 유모차와 휠체어를 빌릴 수 있다. 부산광역시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 등 움직임이 불편한 시민 · 관광객들을 위해 부산종합관광안내소에서 유모차와 휠체어를 무료로 빌려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해 자갈치와 국제시장 일원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유모차와 휠체어를 각 2대씩 배치한 것이다.

관광객들은 관광안내소를 방문하거나 사전 전화예약(263-6253)을

통해 이용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다른 관광안내소에도 유모차, 휠체어를 배치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관광안내소에 관광유망가이드를 배치하고 문화관광해설지를 대상으로 한 퍼즐스텝프투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점자책 제작 등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888-8254)

다대포 조명분수서 사랑고백 하세요... 1월 말까지 이벤트

다대포 해수욕장의 명물인 꿈의 낙조분수가 화려한 조명분수로 다시 태어났다.

사하구는 지난 16일 다대포 겨울 빛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꿈의 낙조분수를 조명분수로 꾸몄다. 조명분수는 분수 중앙에 새 조명을 설치하고, 주변의 나무에는 눈꽃 조명을 달았다. 기존의 바다 조명과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대포 겨울 빛의 거리'는 2월 19일까지 매일 해가 지는 시점부터 오후 11시까지 조명을 밝힌다.

이와 함께 사하구는 관광객, 시민을 대상으로 프러포즈 이벤트를 펼친다. 가족과 연인들이 낙조분수를 이용해 낭만적인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벤트 참가는 낙조분수 홈페이지(fountain.saha.go.kr)를 통해 사전과 원하는 음악을 접수하면 신청한 날 오후 6~8시에 음악과 사연을 소개한다. 사전 소개이벤트는 1월 31일까지.

(문의: 220-5883)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철원군청, DMZ관광청 초청으로 철원을 건다



▲ 철원의 주인공 두루미(천연기념물202호)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길위의 역사, 문화 유적 답사팀,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답사대장(장순복, 대륙항공여행사대표)이 제343차로 지난달 26-27일(1박2일) 간 철원군청, DMZ관광청 초청으로 부산 언론사, 부산 여행사 연합이 철원 철새 탐조, 안보 관광지 팸투어길에 나섰다.

철원은 국내 최대의 안보 관광지로 많은 전시적지와 국민주탑의 본거지였던 노동당사 등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교육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철새 탐조활동은 오전 해를 무렵과 정오부터 2시 사이와 해질무렵이 절경이므로 나머지 시간으로 제2땅굴, 원정역 전망대, 노동당사, 백마고지 전적지, 도괴안사 등 휴전선 일대의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민통선 이북지역의 철원평야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아직도 통제되고 있는 지역이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좋은 휴식지로 여행을 더욱 값지게 한다.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24호로 총면적 396,696㎡의 도래지) 토고 저수지에서 비상하는 철새 군무는 탐조객들의 감탄사를 자아낸다. 평야를 유유히 노니는 두루미는 고고한 선비의 자태를 음미하게 하며, 무리를 지어다니는 기러기와 오리류들은 가족과 연인들의 낭만을 느끼게 하는데 아쉬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철원평야는 쇠기러기의 최대 도래지이며 독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등 많은 종류의 수리류와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110여종의 조류가 월동을 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감성을 마치 않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자연유산에의 보고다. 한때 최고의 인공화 및 불합리한 무역을 자랑하던 곳으로 이곳의 이야기들에 귀기울이면 천연기념물로 지성된 철새들과 함께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놀라움과 고스란히 남아 있을 곳"

김봉오 / 편집장

부산 기장, '꿈의 암치료기' 입자가속기센터 기공식 가져

부산 찾는 외국인의료 관광객 25% 증가 예상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건립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동남권원자력의 학원 인근 부지에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오는 2016년 중입자 가속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에서도 30분 암치료 시대가 열리게 된다.

중입자가속기 개발 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동남권원자력의 학원 인근에 부지 8만8139㎡, 연면적 1만8000㎡(5445평) 규모의 중입자치료센터와 3층 규모의 중입자가속기 연구·조립 시설 등 2개동이 설치된다.

총사업비 1950억원중 국비 700억원과 시·군비 250억원, 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며, 세계 최초로 사이크로트론 방식으로 개발된다.

현재 가속기 개념설계는 완료됐고, 국제자문 위원회로부터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10월 공학설계를 한다. 가속기 제작은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다. 교과부는 4억 전자볼트로 탄소입자를 가속시키는 가속기는 자체 개발하고, 치료 시스템은 국제 입찰을 거쳐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세계적으로도 일본 3대, 독일 2대 등 각 5대만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가 도입되고 치료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방사선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치료기간(30-40회→3-4회)이 짧아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재발암 등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센터가 국내에 완공되면 국내 자체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중입자 치료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장비가 도입되고 치료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과 30분만에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부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 5천921명중 러시아인의 비중이 29%(1천709명)에 달하는 만큼 러시아 의료 관계자들에게 앞선 의료기술과 시설을 선보이고 해운대, 자갈치시장 등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 제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동부산단지역 신설

162억원 들여 2015년께 완공예정



동부산관광단지역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부산-울산)의 역사신선이 된다.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내리역사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경제

성(BC)이 1.08으로 산출됐다. BC가 1을 넘어면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뜻이다. 역사신설 비용 162억 원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한다.

2015년에 완공되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은 관광단지역을 통과하지만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사가 없어 대중교통 수요를 흡수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해남부선 이용자들이 부산 해운대구 송정역이나 기장군 일광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 송정·일광역과 관광단지역의 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한 것도 경제성을 떨어뜨린 한 원인이었다.

부산도시공사 김학근 동부산사업장은 "내리역사가 신설되면 관광단지를 찾는 자가용 방문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의를 마치는 대로 설계에 들어가 동부산관광단지역 마파르가 개장하는 2015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동서양 역사의 중심, 마카오, 이제 세계 여행의 중심지를 꿈꾼다.



유현규 / 마카오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

화려한 불꽃놀이 대회와 눈부시게 빠른 그랑프리 머신의 질주.

숨이 멎을 것처럼 아찔한 공연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그보다 더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곳.

전 세계 산해 진미를 하나하나 맛볼 수 있는 미식천국. 바로 한국에서는 비행기로 단 세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의 파라다이스인 마카오다.



- 새로운 레저 & 엔터테인먼트 중심지

세계 여행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카오의 관광 산업 개발 계획에 따라 최근 마카오에는 수많은 럭셔리 카지노 호텔이 새로 지어졌거나, 레노베이션을 통해 완벽한 변신에 성공했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좁고 복잡한 가로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반도와 달리 세계적인 레저&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를 목표로 매립된 코타이스트립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환상적인 공연과 초대형 쇼펍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그중 베네치안 마카오는 율리히 흐르는 그랜드 캐널 유수의 다양

함과 다양한 무료 공연으로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여행 명소로 부상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티스트 복장을 한 성악가, 연주자, 마이미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비주얼 아티스트가 정해진 장소에서 다양한 쇼를 선사하며 방문자들을 즐거움에 들뜨게 만든다. 예술 공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마카오의 공연예술 세계를 경험해보자. '뽀뽀', 알레그리아 로 쿠네에서도 잘 알려진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는 아시아에서는 베네치안 마카오에 최초로 상설 공연장을 개설하고 자이아(ZIA)를 상연한다. 지아가 중력을 기르려는 부용수들의 기교로 눈과 귀를 사로

잡는다면 베네치안 마카오 건너편의 시티오브드림즈의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The House of Dancing Water)는 단단한 무대와 깊은 수조가 순식간에 모습을 바꿔가며 환상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또한 해마다 테마를 바꿔 진행되는 3D입체 영상 쇼 용의 보물(Dragon's Treasure) 또한 불만한 구경거리로 보물을 지키기 위해 사방을 날아다니는 용의 모습도 뛰어나지만 공연의 마지막에 쏟아져 내리는 급파가 특히 압권이다. 이 외에도 반얀트리, 오쿠라, 갤럭시 호텔과 함께 동양 최대의 3D 극장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갤럭시 마카오와 역시 3개의 호텔과 대규모 MICE 시설과 함께 2012년 상반기 개장을 앞둔 샌즈 코타이 센트럴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마카오의 코타이 지역을 보고 싶다면,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신세계 마카오'를 기대해도 좋다.

2012년 상반기 개장을 앞둔 샌즈 코타이 센트럴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

최근 여행에도 웰빙과 웰니스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유익한 여행에 대한 바람이 스와 및 체험 여행으로 이어졌다. 레저 산업의 첨병에 서 있는 마카오 역시 풍수와 한방 의학을 생활 전반에 활용하는 중국식 건강 요법과 새로운 여행이 결합된 또 하나의 스와 천국이다. 세나도 광장이나 N.A.P.E 지역 같은 변화가에서는 발마사지, 전신 마사지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마사지를 저렴하게 즐겨볼 수 있다. 대부분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4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스파 브랜드' 까지 더해져 마카오로의 휴식 여행이 더욱 매력적이다. 기(氣)와 풍수를 증시하는 중국적 마사지를 원한다면 만다린 오리엔탈 마카오(Mandarin Oriental Macau)이 해답이 될 것이다. 서양식 스와 트리트먼트와 중국식 마사지가 혼합된 '메케니즈 스와'가 추천 메뉴다. 스와를 논하는데 포시즌스 마카오(Four Seasons Hotel Macao)의 스와도 빼놓을 수 없다. 포시즌스 마카오의 스와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트리트먼트중 하나로, 다이아몬드 마그네틱 주얼(Diamond Magnetic Jewels)을 내세우고 있다. 가루로 만든 다이아몬드와 철,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 나쁜 기운을 빼내고 에너지를 회복시킨다. 동아시아에는 마카오에만 있는 럭셔리 스와 체인 브랜드인 스텍스스파(Six Senses Spa)는 MGM 마카오(MGM Macau)에 위치해있다. 몰디브, 유럽, 동남아의 풀빌라 등 초특급 리조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브랜드 스와 센터인 만큼 그 이유로움과 향기까지도 고스란히 만끽해볼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세계적인 스와 브랜드 반얀트리(Banyan Tree)도 마카오에서 누릴 수 있는 스와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다.



다양한 종류의 익스트림 스포츠 및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마카오 타워(Macao Tower). 이곳은 전세계의 액티비티 마니아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필수 코스 중 하나다. 기네스 세계 신기록 대회에서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번지점프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빙대에 선 신수마냥 번지점프 대에 올라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뛰어내리는 기분이란 뛰어내리면 사람만이 될 것이다. 물론 올라갈 용기까지는 있지만 뛰어내릴 용기까지는 없는 용자들을 위해 250미터 상공을 아무 보호벽 없이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 워크 엑스스와 마스트 클라임 액티비티도 마련되어 있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와 축제도 전세계 여행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년 365일, 문학적 감수성을 충전할 국제적 공연과 중국 명필, 세계적 레이서들의 축제인 마카오 그랑프리 대회 등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게 만들어줄 이벤트와 축제를 앞둔, 마카오 여행이 더욱 즐겁다.

- 동서양 역사의 만남

동양 문화와 유럽 문화가 섞이면서 오늘날의 유니크한 도시로서의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

마카오의 매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카오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13년, 포르투갈 사람인 조르주 알바레스가 중국 남단에 도착하면서 포르투갈과 중국과의 무역이 시작됐다. 그 후 마카오는 중계 무역항으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고 동양 문화와 유럽 문화가 섞이면서 오늘날의 유니크한 도시로서의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특별행정구로 1999년 반환되기 이전까지는 약 400여 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는 동안 거의 모든 생활 면에서 동서양의 문화가 뒤섞인 채 발달했으며 매캐니스(Macanese)라고 불리는 독특한 마카오만의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다.

매캐니스 스타일은 전 역사에 걸쳐 마카오 사람들의 일상 생활, 음식 문화, 거리 풍경,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녹아있다. 사색에 잠겨 거리를 거닐기만 해도 지극히 중국적인 풍경과 단아한 포르투갈풍 양식의 조화를 느껴볼 수 있지만 이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마카오의 다양한 박물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카오는 서울시 하나의 구와 비슷한 크기지만 무려 21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박물관이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각 박물관은 통신기술, 차 문화, 자동차 경주, 역사, 종교, 과학, 건축, 와인 등 다채로운 주제를 갖고 있으며 보유한 자료가 풍부하고 꼼꼼한 설명과 체험의 기회를 곁들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재미있게 마카오와 매캐니스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매캐니스 문화 체험은 거리로 나서면 더욱 다양해진다. 30여 개의 세계문화유산과 거리를 가득 채운 짙다다(대서양을 건너는 무역선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 싣고 다녔던 대리석을 쪼개어 만든 모자이크 도보)는 박물관을 그대로 밖으로 내어놓은 듯 이국적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마카오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성 바울 성당의 유적도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돌이킬 수 없는 화재로 건물의 양상한 때에 만을 남긴 채 모두 불타 버렸지만 건축물 자체에 담긴 종교적인 의미와 더불어 인덕 구조의 지형과도 절묘하게 어울리며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 낸다. 성 바울 성당 아래로 내려오면 부채꼴 모양의 광장이 펼쳐진다. 양쪽 가장자리에는 동화책에서나 보았을 파스텔 톤의 예쁜 건물들이 오밀조밀 들어서 있고 바닥에 물결치는 타일 장식이 화려하다. 마카오의 중심부이자 각종 스포츠와 레스토랑이 들어선 활기찬 이 곳은 세나도 광장, 마카오 쇼펍의 중심지이자 젊은이들의 놀이터, 매혹적인 세계문화유산이 온전히 남아있는 명소다. 한편 마카오 이름의 유래가 된 아마 사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 '아마'가오 항구'로, 항구 입구에 아마사린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 곳이 '아마가오'라고 알려주었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를 '마카오'로 부르게 된 데서 현재의 이름이 유래했다.



다양한 여행의 성격이 정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본질은 여전히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마카오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쳐 누적되고 다듬어진 이제는 문화

적 독특함을 반석으로 끊임없이 미래향적인 여행 아이템을 발굴하고 개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불과 10여 년의 시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 등과 함께 이례를 나란히 하는 여행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마카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0월까지 마카오를 찾은 여행객 수는 2천3백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마카오 인구 57만여명의 40배에 이른다. 마카오를 찾은 한국인 여행객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10년에 전년 대비 62% 증가한 33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약 30만 명이 마카오를 찾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과 마카오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현재 2개의 직항 노선보다 더 많은 노선이 추가되어 더욱 가까운 마카오가 될 전망이다. 작지만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 가깝지만 놀라도록 이국적인 매력의 마카오에서 보다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여행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세상을 살 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잘 썼는가를 생각 할 줄 알아야 한다”



김봉오/본지 편집장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한반도 정세의 혼란 속에 壬辰年 새해가 밝았다.

시간은 하루, 한달, 24절기 한해 등으로 매듭을 지음으로써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활력을 얻고자 한것은 인간의 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1년 365일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새해는 지구가 이러한 엄청난 우주여행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여행을 출발하는 날인 셈이다.

다사다난 했던 2011년 막내려 지구가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세계적으로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됐고, 리비아 카다피 국가원수는 시민군에 의해 처참하게 최후를 맞았으며 얼마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 강행군 도중에 열차에서 숨졌다고 한다.

또한 그리스 등 유럽국가의 재정 위기와 미국발 재정위기는 지구촌을 뒤 흔들며, 일본 3.11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1만명 이상 사망 실종됐고 터키강진, 태국 대홍수 등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큰 사건들이 줄비했다. 국내는 부산지축은행 사건으로 수많은 서민들을 울렸으며, 또 무상급식 논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물러났고 그 여파로 인해 안철수 서울대대학원과학기술대학원장 등에게 입은 박원순씨가 새로운 서울 시장이 되기도 했으며 한·미 FTA 물리라고 지금도 여당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경제 또한 가계부채 1000조원을 넘어 전체 가구 평균 3억원 현재 5,205만이나 빚을 지고 있고 국민 42%가 이빚을 생각할 만큼 국가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심한 아전부구의 경색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고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국회가 불법을 일삼으며 무법천지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살기 편하게 해 달라고 뽐냈더니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울분을 느끼고 있다.

새해에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소비위축, 실업증가가 예상되는 등 우리 정세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낸 지력을 갖고 있다. 아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기업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탐심을 버리고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오히려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64년 5억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무역규모가 50여년만에 1조 달러 반열에 오른 것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 오징어와 생사 등 1차 상품에서 출발해 의류와 가발의 경공업 제품으로 진화하고 다시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의 굴뚝 산업으로 이행하는 가했다니 드디어 반도체, 휴대폰, 액정표시 장치(LCD) 등 정보기술(IT) 제품으로 옮겨온 수출 주력상품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무역1조원 달성시대를 열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의미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특정년도를 넘어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크게 올라가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세계7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하면서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과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질서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세계 무역질서의 주요 결정사항은 1조달러를 앞서 달성하면서 세계 무역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한 소수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면서 신흥개도국의 지위에 만족했지만 1조달러 달성을 계기로 무역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무역중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핵심 국가의 일원으로 부상하게 됐다.

역경이 닦혔을 때 굴하지 않고 잘 대처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이지만 내일이라는 희망의 길이 있다. 새해에는 삶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새로운 한해를 맞자. 진정으로 세상을 살 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잘 썼는가를 생각 할 줄 알아야 한다.

관광사 제도를 제안하며...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관련 자격증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었고 또 현실에 적용하기엔 너무 낡은 제도이므로 차체에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관광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가 필요한 능력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여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들을 키워나가야 할 때다.



이평규 / 본지 편집위원

현대사회는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전례 없이 새롭고 많은 전문 직업 군을 만들어내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걸맞던 많은 기능직군들이 사라지는가하면 미적 감각이 바탕이 된 창의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는 것은 문명의 진화과정에서 보이는 보편적 현상일 것이다.

IT산업에서 영상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고 산업현장에서 이들이 연마해온 실력을 발휘할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성숙해야 그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대학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들을 제때에 공급해야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군에 알맞은 공인된 자격을 부여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유효하게 쓰이는 길을 찾아 채용을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산, 관, 학의 참모습이고 책무다.

이는 또한 일자리는 남아도는데도 실업자가 늘어나는 수요의 불일치 현상을 해결하는 길이기도하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민망하다. 엘리트층이라 지적한 것처럼 대학과 정부 관료조직의 속도가 기업에 비해 턱없이 느려서 인가? 아니면 산업시대의 관성에 마냥 주저앉아 있어서 인가?

환경의 변화로 고용 없는 산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자리는 늘 진화하게 마련이어서 오히려 진화의 방향을 예견하지 못하여 능력 있는 인적 자원들을 방치하거나 놓치는 일들이 허다해 이보다 더한 안타까움이 또 있을까 싶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는 놀이가 모든 문화에 주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놀이정신은 사회 모든 부분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시대의 인간의 삶의 중추를 이루는 가치가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성실성과 근면성이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였다면 금세기에는 놀이정신이 새로운 삶의 형식과 질서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는 말이다.

대의정치가가 대중들의 놀이 속에 빠져들고 있으며 경제의 비당에 놀이 정신이 피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대로는 킴체와 혼란의 실마리를 쉽게 갖지 못하고, 예술 또한 심오한 고뇌로부터 단순하고 즉흥적인 놀이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불합리성이나 제어하지 못한 욕망의 분출이라고만 여긴다면 이는 과거의 논리로 미래를 예단하는 몽매일 뿐이다.

관광산업은 소통의 산업이며 일탈의 산업이고 축제의 산업이며 갑탄의 산업이기 때문이고 이는 21세기를 관통하는 모든 문화적 변이들의 본성인 놀이정신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산업이다.

놀이가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이다. 왜 관광산업을 나라마다 전락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

관광산업은 소통의 산업이며 일탈의 산업이고 축제의 산업이며 갑탄의 산업이기 때문이고 이는 21세기를 관통하는 모든 문화적 변이들의 본성인 놀이정신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은 역백의 철학이고 느낌의 미학이며 생명사랑이고 끊임없는 창조적 충동이며 진통에 대한 경건함이다.

하여 관광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21세기 문화적 변이들의 본질을 탐구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놀이의 특질을 모든 산업 속에 통섭시키고 확산시킬 자질을 연마한다. 축제가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의 표상임을 넘어 삶의 주인이 됨을 확인하고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명된 문명의 본질에서 일탈의 비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들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신명나게 이끌어갈 카멜레온들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놀면 불안해지는 산업사회의 엄격함이 관성의 족쇄로 남아 놀이의 가치가 폄하되거나 친시되어 레저관광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거나 홀대되고 뒤이어 관광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소통과 융합의 능력조차 사회 모든 부분에서 수용되거나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정신이 우리 삶에 원천적으로 짙게 베어있으므로 모든 산업에서 관광레저산업의 특성을 잘만 수용 한다면 외연을 기외 부가가치를 확대할 뿐 아니라 환경 친화적 소자를 내포시킬 수 있음에도 주목받을 자질을 이 되련다고 있다.

시행된 유행로에서 쏟아지는 빗방울을 마주하는 철광산업에서부터 위류산업, 신발산업, 농업이나 계절식 골목시장의 삶의 모습, 산업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까지 경이와 감탄, 소통과 축제의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창조적 경영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농업, 의료, 스포츠에서 이미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여 매뚜기 관광, 나비 축제, 의료관광, 스포츠관광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면 누가 모든 산업에서 내재되어있는 놀이적요소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최적화하여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것인가?

이 융합의 소명은 당연히 관광학을 전공한 젊은이들의 소임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은 본연에 몰입되어 외연을 확대시킬 여유를 가지지 못하거나 조직 속에 창조적 변신을 꿈꾸는 놀이꾼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놀이가 갖는 보편성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는 단순하고 안이한 생각이 창조적 모험을 가로막기도 하고 비전문적인 접근으로 시행착오나 오류를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회의를 가중시키거나 놀이의 가치를 왜소시키며 성장 동력에 스스로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미래사회는 이전사회와 핵심경쟁력의 원천이 다르고 그 지배권리가 다르다.

이런 현상은 관광산업 내에서조차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만 되면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좋은 예가 될터이다.

많은 축제들이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놀이의 주체가 보이지 않고 공간을 이끌어낸 이야기가 은축되지 않았으며 무한한 상상력이 은양되지 못하여 감동을 잃고 있다. 보이는 것이라곤 지방자치단체의 치적과 거친 상흔뿐이다.

오래 외부에서 불러들인 흥꾼들이나 사물놀이패들이 놀이관을 벌리고 가면 어느새 지역 상인의 장사 속단 남아 축제는 해질녘 봉형 장터 풀이 되고 만다. 대다수 해양축제의 프로그램에는 창조적 변신이 없고 특색 있는 케뉴개발로 관광객의 미감을 유혹하지 못하며 지나치는 사람들을 신선한 이야기거리로 발길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수십, 수백 곳의 횡집들이 식탁보로 종이를 까는 일에서부터 입가심으로 내놓는 호박전과 찬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상호만 다를 뿐 이질이나 저점포가 손발만큼의 차이도 없다.

생식을 즐겨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동질화된 풍경이 마치 nuss game을 연출하는 모습이다.

관광산업은 소통의 산업이며 일탈의 산업이고 축제의 산업이며 갑탄의 산업이기 때문이고 이는 21세기를 관통하는 모든 문화적 변이들의 본성인 놀이정신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산업이다.

수려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어촌, 농촌, 산촌 또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융합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슈를 또한 다름바 없다.

왜 이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욕구와 변화를 통해 감동을 느끼고 싶어 하는 관광객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가?

그보다 더 답답한 일은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의욕을 보이는 조직이 없는데 있다.

치열한 변화의 수용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바꿈하기를 거부하는 이 오블관원이 난감할 뿐이다.

한마디로 놀이문화의 메카니즘을 찾아 이를 실현할 줄 아는 전문성의 부재 때문이다.

재미있게 즐기고 행복을 찾는 과정을 유도하는 놀이문화의 주체가 빠져있고 그래서 창조적 폭발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재미를 못 느끼는 데 어찌 손이 흥겨워 투입새를 보이라. 자연과 생명이 상상력과 어울려 뒤섞인 풍부한 이야기가 빠져있어 늘 초사위가 거칠고 험박할만 해대는 꼴이다.

이 텅 빈 공간에 관광학을 연마한 젊은이들의 창조적 용불임이 스며들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관광에 대한 그들의 명료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사고의 틀을 넓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을 충만하게 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놀이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한 현대에 당연히 관광레저학을 교육, 훈련받은 인력들이 참여하여야 할 수도 여기에 있다.

관광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관광산업전략화의 첫걸음이다. 공공기관의 관광담당부서에 관광관련 공한 전문가가 있는가를 찾아보면 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시대에 놀이의 본질을 배우고 연구한 전문인은 산업화시대의 전기 기사나 토목기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왜 전기가 토목은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관광은 아무나 계획하고 집행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인가?

정부가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관광분야의 공무원에서부터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관광산업 전반에 의무고용토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관련 자격증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었고 또 현실에 적용하기엔 너무 낡은 제도이므로 차체에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관광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가 필요한 능력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여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들을 키워 나가야 할 때다.

관광사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서 놀이성의 수용을 예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는 늘 위기에 노는 놀이 있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존철살인이 이 땅의 관광전략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강증이 되었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을 함께 가져본다.

부산관광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Tourist Information

i Just Call **'1330'**

- 일반전화 이용시 (By Pay Phone) : 1330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330 (예, 부산관광안내전화는 051+1330)
- By Cell Phone : Area Code+1330 (eg, Busan Tourist Information 051+1330)
- 24시간 통역 서비스 가능 : 24 hour Interpretation service available in <http://tour.busan.go.kr>

| | |
|---------------------------------------|--|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동구 초량동 / 463-3111 | Busan Tourist Association / Choryang 1-dong, Dong-gu |
|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제) / 강서구 대저2동 / 973-4607 |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Int'l) / Daejeo 2-dong, Gangseo-gu |
|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내) / 강서구 대저2동 / 973-2800 |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Domestic) / Daejeo 2-dong, Gangseo-gu |
| 국제여객터미널관광안내소 / 중구 중앙동 / 465-3471 |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gang-dong, Jung-gu |
| 부산역관광안내소 / 동구 초량동 / 441-6565 | Busan Stati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 Choryang 3-dong, Dong-gu |
|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 동구 초량동 / 441-3121 | Busan Information &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 Choryang 1-dong, Dong-gu |
| 해운대종합관광봉사센터 / 해운대구 중동 / 749-5700 | Haeun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 1-dong, Haeundae-gu |
| 송정관광안내소 / 해운대구 송정동 / 749-5800 | Songjeo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 Songjeong-dong, Haeundae-gu |
| UN기념공원안내소 / 남구 대연4동 / 652-1608 | UN Memorial Cemetery Tourist Information Center / Daeyeon 4-dong, Nam-gu |
| 관광불편신고센터 / 연제구 연산5동 / 861-1101 | Tourist Complaints Center / Yeonsan 5-dong, Yeonje-gu |

부산교통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Important Transport-related Telephone Numbers

| | | | |
|-----------------------------|---|--|-----------|
| 항공 Air | 김해국제공항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 www.gimhae.airport.co.kr | 974-3114 |
| | 대한항공 Korean Air | www.koreanair.com | 1588-2001 |
| |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 www.flyasiana.com | 1588-8000 |
| 선박 Ferry | 국제여객터미널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 www.busanferry.co.kr | 465-3471 |
| | 연안여객터미널 Coastal Ferry Terminal | www.seomticket.co.kr | 660-0117 |
| 철도 Train | KTX | www.ktx.korail.go.kr | 1544-7788 |
| | 철도 (부산역 Busan Station) | www.busanstation.co.kr | 1544-7788 |
| 시외버스 Inter-city Bus | 부산고속버스터미널 Busan Express Bus Terminal | www.bxt.co.kr | 1577-9956 |
| | 동부시외버스터미널 Dongbu Intercity Bus Terminal | | 1577-9967 |
| | 서부시외버스터미널 Intercity Bus Terminal | | 1577-8301 |
| 시내교통 City Transportation | 렌터카(부산자동차대여사업조합) Rent-A-Car | | 505-4244 |
| | 택시(부산택시사업조합) Taxi | | 462-4651 |
| | 시내버스(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 City Bus Office | | 635-5221 |



KOREAN RESTAURANT SAMIHUN

고객님의 소중한 모임을
사미헌으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 B1 4인실, 6인실, 16인실, 20인실
(비즈니스 상담 및 품격 있는 집대)
- F1 테이블과 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담없이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자리)
- F2 8인실, 10인실, 12인실, 16인실, 20인실, 28인실
(귀한 손님 접대, 가족 모임, 친목회 및 상견례)
- F3 14인실, 24인실, 38인실, 50인실, 100인실
(출판회, 직장회식, 동창회, 중친회, 대연회)

▼ 오시는 길



사미헌
KOREAN RESTAURANT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474-26번지
예약문의: 051.819.6677
홈페이지: www.samihun.com



사장님, 알고계세요?

16억 중국인들은 은련(CUP)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

중국 관광객 은련카드
소비 캠페인 매출 255% ↑

2010.11.08 김지은 기자

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중국은련카드사, 비씨카드사와 공동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련카드를 이용해 35만원이상 결제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 등 소평관광 활성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년 동기 매출액인 503억에 비해 255%증가한 1285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국경절 특수기간(10월 1~7일)이던 10월은 영동 특구에 아치, 거리베너, 현수막, 전단지 배포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캠페인을 적극 알리 국내 은련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 10월 5만 3000건 189억에 비해 230% 증가한 12만 건 4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은 318%, 신세계 270%, 현대백화점 81%등 유동업계 역시 중국 관광객 쇼핑 매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은련카드 가맹점, 이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요 가맹점들이 은련카드를 수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 주요 은련가맹점 현황

- 면세점 롯데면세점(서면점, 김해공항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 특급호텔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 쇼핑센터 용두산공원쇼핑센터, 광복로 일대, 남포동 지하상가

●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국내 모든 비씨카드 가맹점은 '은련카드 가맹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벤사 또는 벤대리점에 전화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완료 사실
전화 통보

'은련카드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1588-7418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진행

- ① 은련카드 가맹점 특약서 체결
- ② 비씨카드의 은련 특약가맹점 전신등록
- ③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은련카드 테스트
- ④ 은련카드 스티커 부착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모든 사항을 편리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가맹점 가입 완료

● 은련카드 거래 시 가맹점수수료 및 카드매출대금 인금은 비씨카드 거래사와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우리투어와의 만남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2012년 주요 사업 내용

- 1월 ~ 2월 : 부산 ↔ 치앙마이 직항 전세기
- 5월 ~ 10월 : 부산 ↔ 장가계 직항 전세기
- 6월 ~ 8월 : 부산 ↔ 연길 직항
- 12월 ~ 2월 : 부산 ↔ 해남도 직항
- 4월 ~ 10월 : 동남아 지역 2개 이상 지역 운항 예정

부산·영남지역 대표 여행 브랜드 우/리/투/어 - www.wooritour.kr

중국팀 : (051) 466-1381 동남아팀 : (051) 469-1112 일본팀 : (051) 469-1120 국내팀 : (051) 465-5400 항공·BSP : (051) 466-1388

여행사 보증은 여행공제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자, 선박 등과의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현대드림투어, 세종투어여행, 롯데관광개발, 오케이캐쉬백서비스(주)투어비스, 레드캡투어, 맥여행사, 자유투어, 노랑풍선, 한진관광, 롯데제이티비, 투어이천,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걸리버트래블어소시에이트, 신한투어, 여행사닷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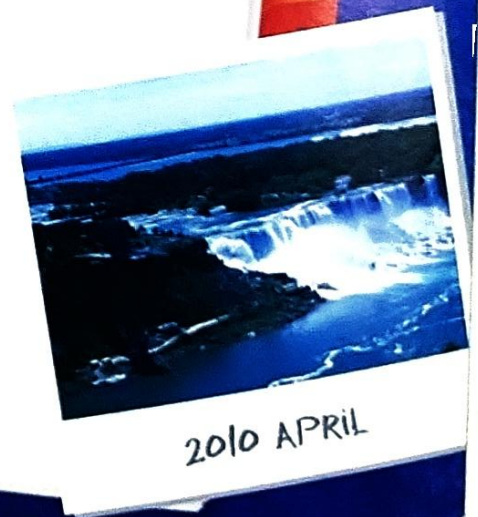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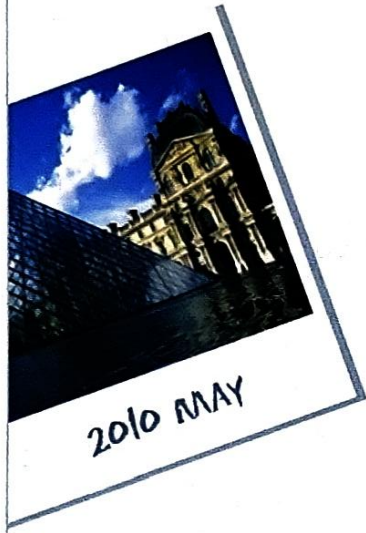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철 도 | 한국철도공사

선 박 | 큐슈여객철도, 대아여행사, 한일고속, 대아고속해운, 씨월드고속훼미리,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 · 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 팩스 02-757-7490

KATA 02-752-8692

서울 02-757-7482
 대구 053-746-6407
 광주 062-224-4486
 울산 052-275-2412

강원 033-242-0089
 충남 042-254-5465
 전남 061-285-0833
 경남 055-212-1345-6

부산 051-463-3111
 인천 032-432-4590
 대전 042-226-8413
 경기 031-255-8424

충북 043-231-5563
 전북 063-287-6292
 경북 054-745-0750
 제주 064-742-8861